

한 번도 본 적 없는 New Wave,
중앙대학교로부터.

BECAUS the WAVE

2026
중앙대학교
논술
가이드북
[인문계열]

정답보다 더 큰 질문을 던지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 중앙의
● Research-Wave :
단순한 해답이 아닌
근본적인 탐색을 멈추지 않는
중앙에서 세상을 바꿀 공식이
만들어진다

5년간 연구비 약 1조 1천억 원 수주로
전국 5위를 자랑하는 중앙대학교는 기초부터
응용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며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는 연구와 미래 해법을
만들어냅니다.

Research—Wave



**종합사립대학
연구비 수주
2년 연속 5위**



**최근 5년간
연구 및 정부재정
지원사업
약 1조 1천억**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SRC/ERC)**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18개
사업단(팀)**



2026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인문계열)

입학처장 인사말 06

출제위원장 인사말 08

I. 2026학년도 논술전형 안내

- 1.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10
- 2. 지원자격 10
- 3. 전형일정 11
- 4. 수능최저학력기준 11
- 5. 전형방법 12
- 6. 합격자 결정 13
- 7. 제출서류 및 방법 13

II. 2025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 1. 모집인원 및 경쟁률 16
- 2.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18
- 3. 논술/교과 성적 현황 20
- 4. 모집단위별 경쟁률 및 논술성적 22

III. 선배들이 들려주는 합격 가이드 23

IV. 학과 미리보기

- 1.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8
- 2. 공공인재학부 29
-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30
- 4. 글로벌금융전공 31

V.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 1. 2026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34
- 2. 2026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문제해설 40
- 3. 2026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46
- 4. 2026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문제해설 52

VI.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 1. 인문사회계열 59
- 2. 인문사회계열 문제해설 66
- 3. 경영경제계열 72
- 4. 경영경제계열 문제해설 78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중앙대학교 입학처장 이상명입니다.

중앙대학교 논술전형에 향한 담대한 도전에 나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장 큰 목표인 대입이라는 중요한 여정 가운데 중앙대학교 논술전형을 선택하게 된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과 함께 노력의 결실을 함께 나눌 기쁜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1916년 개교한 중앙대학교는 '의(義)와 참(眞)'의 교육이념을 근간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봉사와 참여를 통해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매진해 왔습니다. 깊이 있는 전공 역량과 폭넓은 융합적 사고를 함께 갖춘 인재,

전문적 지식을 넘어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재,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문화 포용성을 갖춘 미래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앙대학교의 핵심 교육목표입니다.

이러한 중앙대학교의 교육 철학은 논술전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단순 사실 암기를 넘어 논리적 사고력과 비판적 분석능력, 창의적 표현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중앙대학교 논술전형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쌓아온 생각의 깊이, 타당한 의견 전개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그간 치열하게 쌓아온 학습과 사고의 깊이를 아낌없이 보여주게 될 중앙대학교 논술전형은 단순한 대입의 관문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 견게 될 학문의 여정과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논술전형에 '진심'이란 세간의 평을 받고 있는 중앙대학교는 올해 역시 논술전형을 통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은 물론 출제 범위와 문제 유형, 평가 기준 등 모든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교육 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논술 70%와 학생부 30% 반영을 통해 누구나 논술전형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전형을 설계했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논술전형을 통해 중앙대학교가 만들어 나가는 가능성의 파도에 올라타는 인재들이 될 수 있길, 아울러 새로운 가능성의 파도를 만들어 나갈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인재들로 성장하는 계기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높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을 중앙대학교에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진심 어린 응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입학처장

이성명

출제위원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인문계열 출제위원장입니다.

중앙대학교 논술전형에 관심을 갖고 논술전형 가이드북의 첫 장을 펼친 수험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도 중앙대학교는 인문계열 모의 논술을 출제하는 데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전에 안내한 출제 방향과 채점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시험이 진행되도록 노력했음은 물론입니다. 이는 본 논술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앙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사실을 나열하는 기술이 아니라, 제시문을 이해하고 통합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실히 학습해 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학습 과정에서 쌓아 올린 사고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와 제시문을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글쓰기에 있어서는 자신만의 언어로 참신하면서도 일관된 논의를 전개하는 데 집중하길 권합니다.

인문학적 사고는 사람과 사회를 진중하게 바라보며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이번 논술전형을 통해 각자의 생각과 고민을 펼쳐 보일 기회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자신의 글로 세상과 소통하는 순간들이 쌓여 여러분이 크게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고심 끝에 답안지에 옮겨 낼 한 줄 한 줄의 문장에서 치열한 사유의 흔적들을 발견하길 기대하며, 올해 여러분의 대입에 건승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학년도 중앙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전형 출제위원장

I.

2026학년도 논술전형 안내

1.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10
2. 지원자격	10
3. 전형일정	11
4. 수능최저학력기준	11
5. 전형방법	12
6. 합격자결정	13
7. 제출서류 및 방법	13



I. 2026학년도 논술전형 안내

- 논술 70%, 학생부 30%(교과 20% + 비교과(출결) 1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 논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며 인문계열은 통합형, 자연계열은 단일 교과형(수학)으로 출제
 -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 논술 기출문제, 예시답안, 채점기준 등 다양한 정보 공개
- 교과: 석차등급 상위 5개 과목 반영 / 비교과(출결): 미인정 결석 1일 이하이면 만점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계열	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서울	인문	국어국문학부	국어국문학	6	자연	서울	자연과학	물리학과		6			
			영어영문학과						10	화학		6		
			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	8				생명과학과		6			
				프랑스어문학	8				수학과		6			
				러시아어문학	8			공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공학	9			
			아시아문화학부	일본어문학	6				도시시스템공학	6				
				중국어문학	6				건축학부		11			
			철학과					6	에너지시스템공학부		9			
			역사학과					6	화학공학과		10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6	기계공학부		17			
				심리학과				7	창의ICT공과	전자전기공학부		18		
				문헌정보학과				6		융합공학부		8		
				사회복지학부				6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학부		17		
				사회학과				7		시학과		8		
		도시계획·부동산학과			6			약학	약학부		24			
		공공인재학부			11				의과	의학부		18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0			경영경제		산업보안학과(자연)		6		
		사범		교육학과					6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자연)		13	
				영어교육과				7	다빈치		생명공학	생명자원공학부	동물생명공학	6
		경영경제	경제학부					11		식품공학부			식품생명공학	6
			응용통계학과					6				식품공학	식품공학	7
			광고홍보학부	광고홍보학				6		식품영양			6	
				국제물류학과				6		시스템생명공학과		6		
			경영학부	경영학				54		공과	첨단소재공학과		7	
		글로벌금융		6	예술공학			예술공학부			10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13						
		논술(논술) 총계										484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진학대상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I. 2026학년도 논술전형 안내

전형일정

1) 전형 전체 일정

구분	일시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5. 9. 9.(화) 10시 ~ 12.(금) 18시	
서류제출	2025. 9. 9.(화) 10시 ~ 15.(월) 16시	• 해당자에 한해 온라인 업로드
고사장 조회 및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5. 11. 18.(화) 14시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시험장소: 서울캠퍼스 내 고사장
논술고사	자연: 2025. 11. 22.(토) 인문: 2025. 11. 23.(일)	
최초 합격자 발표	2025. 12. 12.(금) 14시	
최초 합격자 문서 등록	2025. 12. 15.(월) ~ 17.(수)	• 등록: 수시모집요강 p.83-84 참고
충원 합격자 발표	2025. 12. 18.(목) ~ 23.(화) 18시	•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 후후 공고
합격자 전체 등록금 납부	2026. 2. 3.(화) ~ 5.(목)	

※ 상기 일정은 전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고

2) 모집단위별 논술고사 일정

구분	11. 22.(토) - 자연계열		11. 23.(일) - 인문계열	
	대학	모집단위	대학	모집단위
1교시 (10:00 -12:00)	자연과학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경영경제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광고홍보학부(광고홍보학), 국제물류학과, 경영학부 전체
	공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전체, 건축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화학공학과, 기계공학부, 첨단소재공학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학부, SI학과		
	경영경제	산업보안학과(자연)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자연)		
	생명공학	생명자원공학부 전체, 식품공학부 전체, 시스템생명공학과		
예술공학	예술공학부			
2교시 (14:00 -16:00)	창의ICT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융합공학부	인문	국어국문학부(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부, 유럽문화학부 전체, 아시아문화학부 전체, 철학과, 역사학과
	약학	약학부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공공인재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의과	의학부	사범	교육학과, 영어교육과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 지원한 모집단위가 배정되어 있는 시험일 및 시간에 응시해야 함(타 시험시간에 응시할 경우 퇴실 조치)

※ 입실은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수능최저학력기준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등급을 반영하며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캠퍼스	계열	모집단위	영역별 기준	탐구영역 반영방법	공통	
서울	전체	전체(약/의학부 제외)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상위 1과목 반영 2과목 평균 반영 ¹⁾	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	약학부 의학부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다빈치		전체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상위 1과목 반영	

¹⁾ 2과목 평균은 소수점 자리 버림 없이 그대로 반영(예시: 4개 영역 등급 합 5.5인 경우 미충족)

※ 영어 등급 반영 시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하여 1등급으로 간주하여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여부를 산정

※ 제2외국어와 한문은 반영하지 않음

I. 2026학년도 논술전형 안내

전형방법

- 1) 전형요소: 논술 70% + 학생부 교과 20% + 학생부 비교과(출결) 10%
- ※ 전형 최고점 1,000점, 최저점 0점 기준
 -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해 감점 반영(수시모집요강 p.77 참고)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수시모집요강 p.74-76 참고)

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대상: 지원자 전체(단, 비교내신 대상자 제외)

교과		비교과(출결)
반영 교과	반영 교과의 반영방법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교과	석차등급 상위 5개 과목의 환산점수 활용 ※ 석차등급이 없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 교과별/학년별 가중치 없음	미인정 결석 일수 기준으로 환산점수 반영

나) 비교내신 대상 및 반영방법

비교내신 대상	반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고교 2024년 2월 이전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자 포함)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 	논술성적에 의한 비교내신 적용

3) 논술

가) 출제수준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
-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사고력과 쓰기 능력 측정에 중점을 둔 출제

나) 출제유형

계열	논술유형	모집단위	출제유형	시험시간
인문	인문사회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간호학과(인문)	언어논술(3문항)	120분
	경영경제	경영경제대학(산업보안학과(자연)* 제외)	언어논술(2문항), 수리논술(1문항)	
자연	자연	전 모집단위	수리논술(4문항)	

* 산업보안학과(자연)은 자연계열로 수리논술(4문항)을 응시해야 함

다) 출제범위

계열	논술유형	출제유형	교과	과목명
인문	인문사회/ 경영경제	언어논술	국어교과	국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사회교과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영경제	수리논술	수학교과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자연	자연	수리논술	수학교과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I. 2026학년도 논술전형 안내

합격자 결정

- 1)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2) 결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3) 본교 입학전형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격자(지원자격 미충족자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4) 동점자 처리 기준

구분	동점자 처리 기준
인문	논술 총점 고득점자 → 2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 1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 3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자연 (약학부/의학부 포함)	논술 총점 고득점자 → 4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 3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 2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 1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

- 5)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출서류

구분	제출대상	제출서류	제출일정 및 방법	세부내용
필수	전체	학교생활기록부 및 성적 관련 서류	- 온라인 제공 동의자*: 원서접수 시 온라인 제공 동의 선택 - 그 외: 온라인 업로드 (2025. 9. 9.(화) 10시 ~ 15.(월) 16시)	• 국내고교: 학교생활기록부 (2024년 2월 이전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로 제출 가능) •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온라인 제공 동의: - 국내고: 2022년 2월 ~ 2026년 2월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지원자
(2005년 2월 ~ 2021년 2월 졸업자는 희망 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생성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 검정고시: 2017년 1회차 ~ 2025년 1회차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동의 지원자

2)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는 '1) 제출서류' 표의 해당 서류를 아래 방법에 따라 온라인 제출해야 함

온라인 업로드	기한	2025. 9. 9.(화) 10시 ~ 15.(월) 16시, 해당 기간 내 재업로드 가능
	대상 서류	'1) 제출서류'의 해당 서류
	방법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확인 페이지에서 대상 서류 전체를 1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온라인 업로드 (50MB 이내, PDF만 가능)

※ 서류제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온라인 업로드로 제출하며, 우편 및 방문제출이 불가함
- 보완서류 발생 시 요청시기: 2025년 11월 ~ 12월 중(수시모집요강 p.18 '라. 지원자 유의사항 - 7)번' 참고)
- 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과 함께 공증받은 영문 또는 국문 번역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와 입학원서 인적사항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중앙대학교 학칙 제21조(입학허가 및 취소)에 의거하여, 대학전형 간 부정행위(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위변조 등의 기타 부정행위)로 지원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할 수 없음
- 수험표는 전형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야 함
- 최종 합격(등록)자 제출서류 원본 제출 안내
 - 최종 합격(등록)자는 온라인 업로드한 서류의 원본을 2026. 3. 3.(화)까지 본교에 제출해야 함
 - 최종 합격(등록)자 중 고교 졸업예정자는 지원자격 재확인을 위하여 고교졸업증명서 원본 1부를 **고교 졸업일 이후** 발급하여 2026. 3. 3.(화)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함

II. 2025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 | | |
|---------------------|----|
| 1. 모집인원 및 경쟁률 | 16 |
| 2.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 18 |
| 3. 논술/교과 성적 현황 | 20 |
| 4. 모집단위별 경쟁률 및 논술성적 | 22 |

III. 선배들이 들려주는 합격 가이드 23





II. 2025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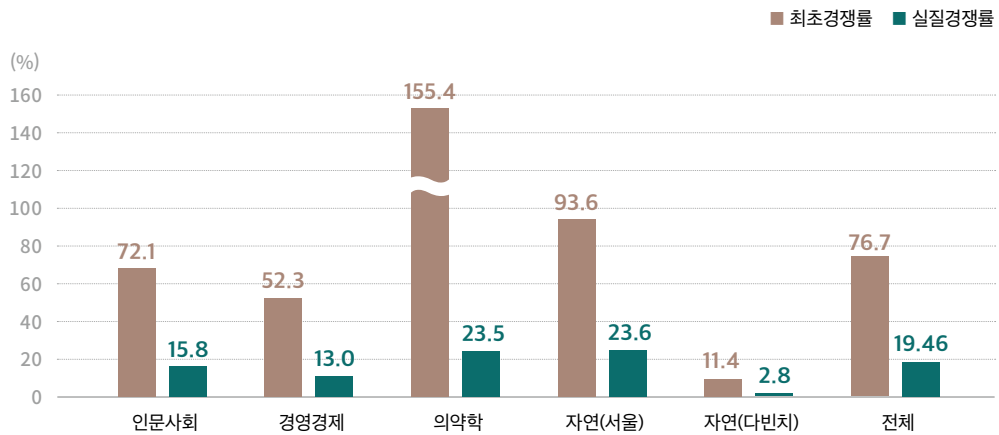
모집인원 및 경쟁률

- 논술전형 경쟁률 76.7:1 (478명 모집, 36,668명 지원)
- 의학부(157.72:1), 약학부(153.73:1), 전자전기공학부(122.72: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122.30:1), 소프트웨어학부(110.29:1), 기계공학부(104.41:1) 화학공학과(100.7:1) 최상위 경쟁률 기록

[표1-1] 논술전형 경쟁률 및 추가합격률

모집계열	모집인원(명)	지원인원(명)	최초경쟁률	실질경쟁률	총원율(%)
인문사회	148	10,676	72.1:1	15.8:1	10.8
경영경제	89	4,657	52.3:1	13.0:1	9.0
의약학	44	6,836	155.4:1	23.5:1	11.4
자연(서울)	149	13,950	93.6:1	23.6:1	34.2
자연(다빈치)	48	549	11.4:1	2.8:1	27.1
총 계	478	36,668	76.7:1	19.46:1	19.5

[그림1-1] 2025학년도 논술전형 최초경쟁률 및 실질경쟁률



2025학년도 논술전형 경쟁률은 전체 76.7:1로, 전년도(85.0:1) 보다 하락하였다. 논술전형의 경쟁률은 수시모집 타 전형에 비해 높지만, 실질경쟁률은 최초경쟁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원서접수 마감 후 공지되는 최초경쟁률에 주목할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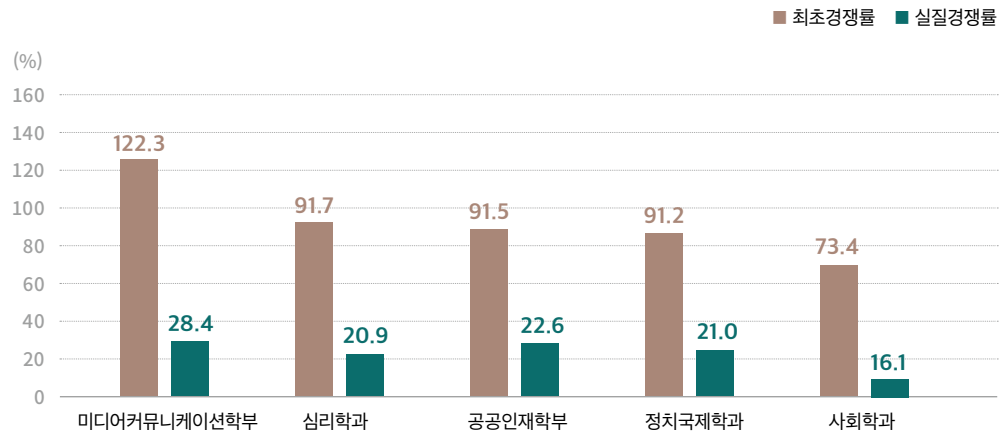
논술계열별 최초경쟁률과 실질경쟁률(응시율, 수능최저기준통과율 적용)을 비교해보면 인문사회는 15.8:1, 경영경제는 13.0:1, 자연(서울)은 23.6:1 등 실질경쟁률이 최초경쟁률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소재 자연계열 모집단위(학과)의 2025학년도 평균경쟁률은 93.6:1로 상승하였다. 의학부의 경우 157.7:1의 경쟁률로 지난해(203.4:1)와 비교하여 하락하였으며, 약학부도 마찬가지로 153.7: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176.6:1) 대비 경쟁률이 하락하였다. 다빈치캠퍼스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11.4:1로 자연계열 평균경쟁률보다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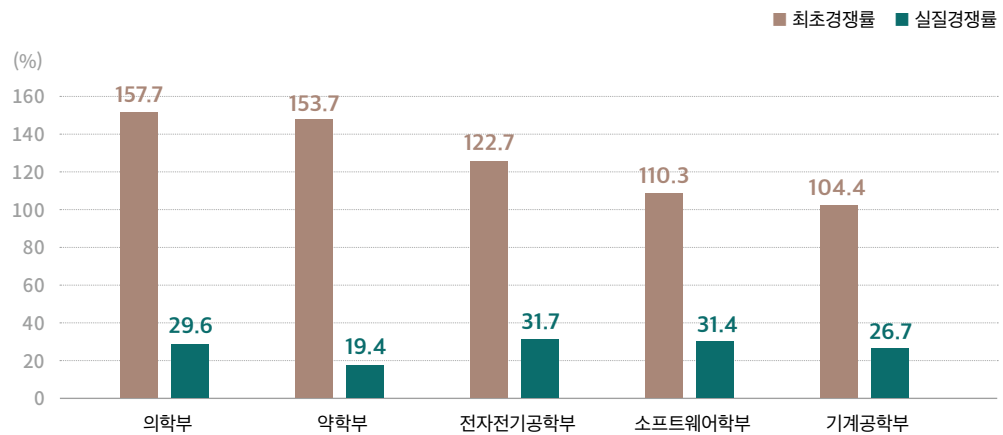
II. 2025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모집인원 및 경쟁률

[그림1-2] 인문계열 최초경쟁률 상위 5개 모집단위



[그림1-3] 자연계열 최초경쟁률 상위 5개 모집단위



계열별 경쟁률이 가장 높은 다섯 개 학과는 [그림 1-2],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문계열에서는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의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으며, 이 중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와 심리학과는 11년 연속 최상위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 학과임을 입증하였다. 자연계열에서는 의학부의 경쟁률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고, 의학부와 약학부를 제외하면 전자전기공학부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최초경쟁률 상위 5개 모집단위의 실질경쟁률은 계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의 최초경쟁률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수능과 논술고사 준비를 통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II. 2025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 지원자 및 합격자의 약 70% 일반고 출신 학생이 차지
 - 지원자의 약 35%, 합격자의 약 41%가 고3(졸업예정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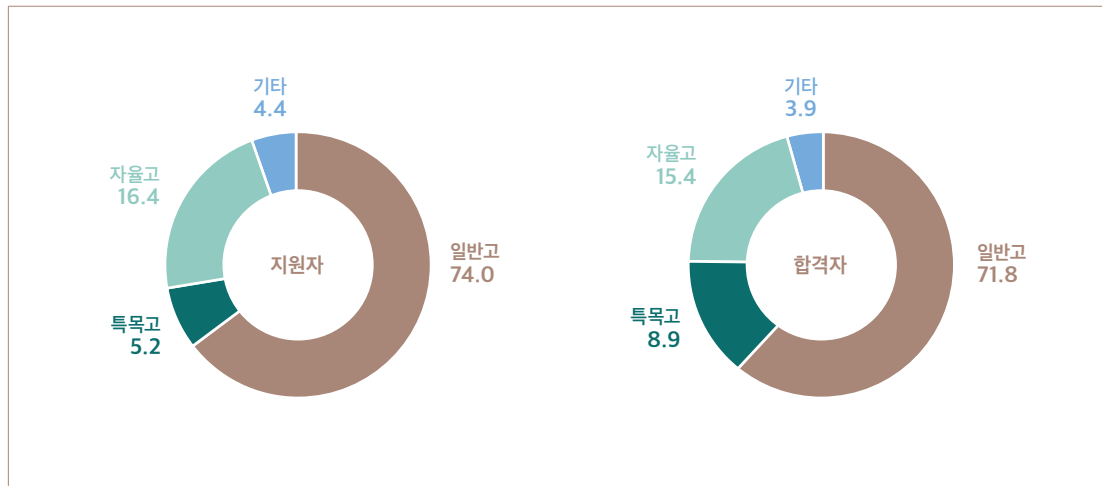
1) 고교 유형별 분석

합격자의 71.8%가 일반고, 8.9%가 특목고 출신으로 출신으로, 지난해(각각 70.1%, 7.5%)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반면 자율고의 경우 합격자 비율이 15.4%로 지난해 대비 하락하였다.

[표2-1]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현황(%)

모집계열	지원				합격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기타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기타
인문	73.2	9.2	11.4	6.2	70.5	14.6	10.7	4.2
자연	74.6	2.3	19.9	3.2	72.9	4.2	19.4	3.5
계	74.0	5.2	16.4	4.4	71.8	8.9	15.4	3.9

[그림2-1]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현황(%)



II. 2025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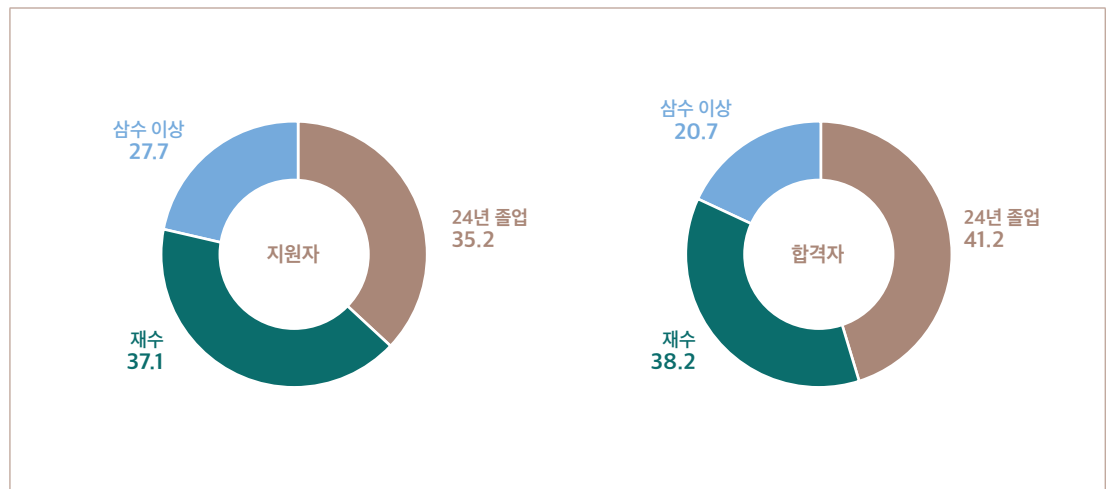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2) 고교 졸업시기별 분석

지원자 중 35.2%가 고3(졸업예정자)였으며, 합격자 비율은 41.2%로 지원 비율 대비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계열별 지원 대비 합격 비율을 살펴보면 인문계열에서는 재수생이, 자연계열에서는 고3 지원자가 강세를 보였다.

[표2-2]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졸업시기별 현황(%)

모집계열	지원			합격		
	24년 졸업 (고3)	재수	삼수 이상	24년 졸업 (고3)	재수	삼수 이상
인문	37.0	37.6	25.4	31.8	44.8	23.4
자연	33.9	36.8	29.3	49.0	32.6	18.4
계	35.2	37.1	27.7	41.2	38.2	20.7

[그림2-2]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졸업시기별 현황(%)



II. 2025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논술/교과 성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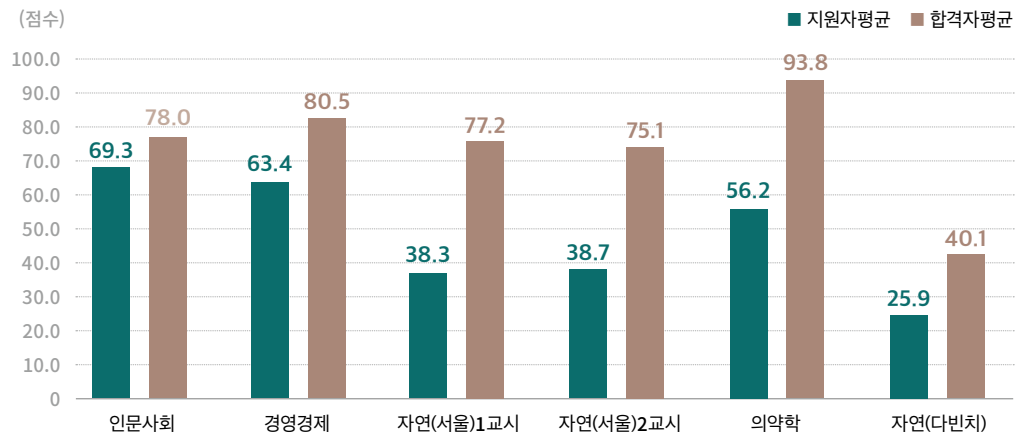
1) 논술성적 분석

[표3-1] 논술 유형별 지원/합격자 논술성적 현황

(단위: 점)

캠퍼스	구분	교시	지원		합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서울	인문사회	2교시	69.3	7.2	78.0	2.4
	경영경제	1교시	63.4	12.1	80.5	3.0
	자연 (의약학 제외)	1교시	38.3	17.8	77.2	8.6
		2교시	38.7	16.7	75.1	4.7
	의약학	2교시	56.2	21.1	93.8	6.3
다빈치	자연	1교시	25.9	13.5	40.1	12.7

[그림3-1] 논술 유형별 지원/합격자 논술성적 현황



본교 논술은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교육을 최소화 하고 공교육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논술전형에 출제되는 제 시문과 개념 모두 고교과정의 교과서에서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논술 가이드북을 활용한다면 논술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본인이 지원하는 계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인문계열은 지원하는 모집단위에 따라 인문사회논술 또는 경영경제논술을 응시 하게 된다. 인문사회논술은 언어논술 3문항, 경영경제논술은 언어논술 2문항과 수리논술 1문항으로 구성된다.

인문사회논술의 합격자 평균점수는 78점, 경영경제의 합격자 평균점수는 80.5점이다. 이를 지원자 평균점수와 비교해보았을 때, 인문사회논술보다 경영경제논술에서의 점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경영경제논술의 경우 합격자 대부분이 수리논술에서 고득점을 받는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수리논술의 난도가 높지 않은 만큼 풀이 과정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접근과정과 정답을 작성하되 수식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II. 2025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논술/교과 성적 현황

자연계열은 2024학년도 논술전형부터 과학논술이 폐지되어 수학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도 과학문항보다 수학문항에서 변별력이 높았으며, 지원자 평균 점수와 합격자 평균 점수의 차이가 약 40점으로 매우 높은 모습이 확인되었다. 특히, 의약학의 경우 지난해보다 지원자 평균점수는 낮아졌으며(60.1점 → 56.2점) 합격자 평균점수는 상승한(91.7점 → 93.8점) 모습을 보였다.

다빈치캠퍼스는 합격자 평균이 40.1점, 표준편차가 12.7에 달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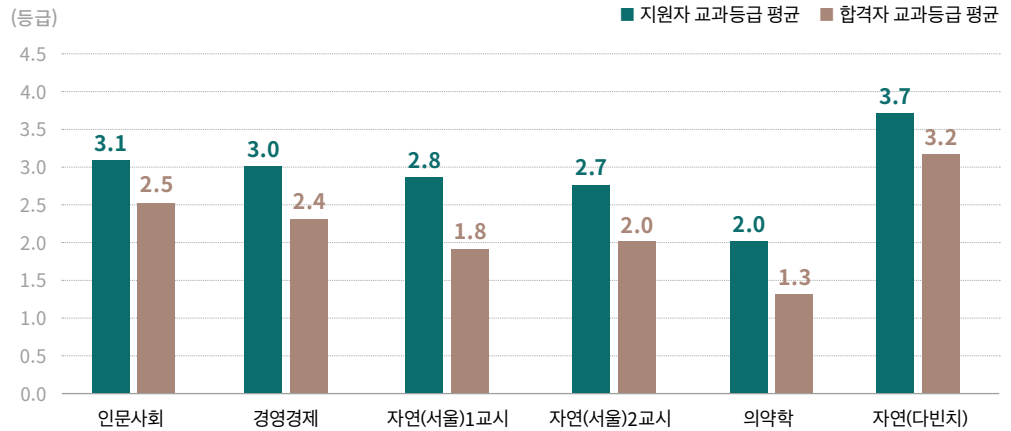
2) 교과 성적 분석

[표3-2] 지원/합격자의 교과 성적(상위 5과목) 현황

(단위: 등급)

캠퍼스	구분	교시	지원		합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서울	인문사회	2교시	3.1	1.2	2.5	1.0
	경영경제	1교시	3.0	1.2	2.4	1.0
	자연 (의약학 제외)	1교시	2.8	1.1	1.8	0.7
		2교시	2.7	1.1	2.0	0.8
	의약학	2교시	2.0	1.0	1.3	0.5
다빈치	자연	1교시	3.7	1.1	3.2	1.0

[그림3-2] 지원/합격자의 교과 성적(상위 5과목) 현황



교과 성적 반영방법 중 가장 큰 특징은 전체 과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닌, 상위 과목에 한해 교과 성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1~3학년 반영교과 전체 이수과목 중 학년별, 과목별 가중치 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중 석차등급으로만 가장 높은 상위 5과목을 반영한다.

따라서 실질적 교과 반영 비율은 높지 않으며, 논술 성적이 당락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올해 교과 성적 반영은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2025년 2월 졸업자까지 적용하며, 이전 졸업자 및 해외고교 졸업자 등은 논술 성적에 의한 비교 내신을 적용한다.

II. 2025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모집단위별 경쟁률 및
논술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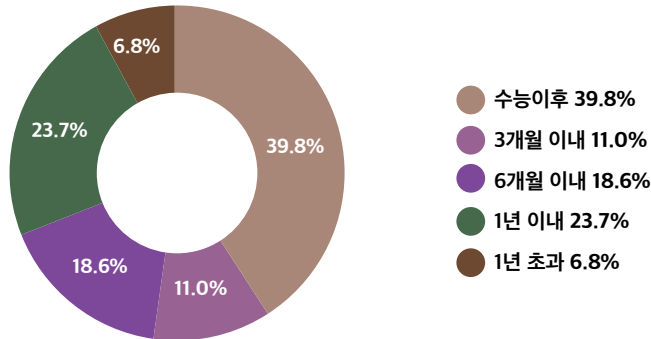
대학	학과/부	전공	최초 경쟁률	실질 경쟁률	합격자 평균점수	응시자 평균점수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66.3	14.7	76.08	68.46	
	영어영문학과		66.2	16.6	73.89	66.08	
	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		63	14.3	77.63	67.91
		프랑스어문학		58.6	14	81.16	73.64
		러시아어문학		54	8.6	77.00	70.25
	아시아문화학부	일본어문학		55.5	9.5	76.92	65.37
		중국어문학		51.7	10.7	76.50	66.02
철학과		64.7	14.5	80.79	71.59		
역사학과		60.2	13.2	77.95	70.10		
사회과학대학	정치·국제학과		91.2	21	74.50	65.55	
	공공인재학부		91.5	22.6	80.42	71.67	
	심리학과		91.7	20.9	78.71	71.19	
	문헌정보학과		64.7	15	79.93	73.85	
	사회복지학부		61.8	12.5	79.54	71.6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22.3	28.4	77.41	67.16	
	사회학과		73.4	16.1	77.82	69.54	
	도시계획·부동산학과		78.5	18.7	78.93	67.03	
사범대학	교육학과		59.2	11.7	81.07	72.96	
	영어교육과		60.3	14.6	78.14	72.32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경영학	55.6	14.8	78.90	62.67	
		글로벌금융	46.7	10.7	83.46	68.35	
	경제학부		48.5	11.6	84.23	65.05	
	응용통계학과		46	11.3	84.83	66.15	
	광고홍보학과		49	9.3	81.13	62.17	
적십자간호대학	국제물류학과		45.3	8.3	81.46	62.41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인문)		72.8	11.8	76.63	67.87	
	물리학과		64	11.8	73.50	38.05	
	화학과		73.3	16.3	75.35	39.36	
	생명과학과		90.5	23.7	74.00	37.34	
공과대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도시시스템공학	68	15	84.55	47.55	
		건설환경플랜트공학	81.3	20.8	78.83	36.90	
	건축학부		87.4	19.6	68.13	33.33	
	화학공학과		88.4	17.5	69.62	29.04	
	기계공학부		100.7	28.9	80.34	39.80	
	에너지시스템공학부		104.4	26.7	77.60	39.68	
창의IC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90.6	23.3	80.93	37.95	
	융합공학부		122.7	31.7	76.39	39.28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부		98.4	24.9	71.15	37.05	
	SI학과		110.3	31.5	84.75	40.58	
약학대학	약학부		96.1	28.4	80.64	42.41	
의과대학	의학부		153.7	19.5	89.11	50.90	
적십자간호대학	간호학과(자연)		157.7	29.6	99.47	62.04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공학부	동물생명공학	60.5	13.4	71.10	35.77	
		식물생명공학	11.2	2.7		30.09	
	식품공학부	식품공학	9.5	1.7		21.26	
		식품영양	11	2.3	40.1	28.28	
		시스템생명공학과	9.8	2.5		24.43	
공과대학	첨단소재공학과	13.5	4.2		28.89		
예술공학대학	예술공학부	14.4	3.9		29.14		
		10.7	2.5		19.67		

III. 선배들이 들려주는 합격 가이드

전년도에 논술전형으로 합격한 선배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논술고사를 준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시험에 응시하였는지, 합격 비결은 무엇인지 앙케이트를 실시 했습니다. 합격자의 25%가 응답한 만큼 신뢰도 높은 앙케이트겠죠? 선배들이 어떻게 답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우리대학 논술전형 준비는 얼마나 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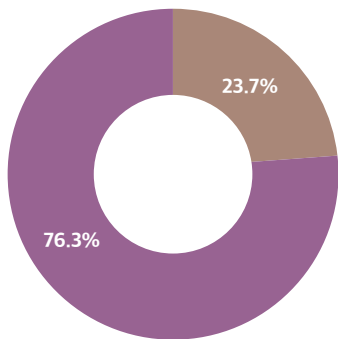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합격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인 39.8%가 수능 이후에 논술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포함해 3개월 이내(11.0%), 6개월 이내(18.6%) 등 중·단기간 준비를 통해 합격한 사례가 전체의 약 70%에 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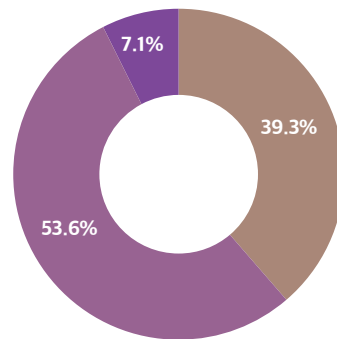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중앙대학교 논술전형이 장기간의 준비보다는 전략적인 단기 준비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논술 유형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수능 준비와 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에게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한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Q2. 우리대학 모의논술에 응시하였나요? 응시하였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네 23.7%
● 아니요 76.3%



● 매우 도움되었다 39.3%
● 도움되었다 53.6%
● 보통이었다 7.1%
● 도움되지 않았다 0.0%
●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0.0%

III. 선배들이 들려주는 합격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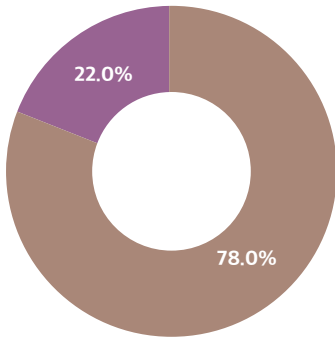
모의논술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시행되며, 모든 고등학교에서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응시자 수는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한 학생 중 92.9%가 '도움되었다' 또는 '매우 도움되었다'고 응답해, 모의논술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모의논술을 통해 본인의 논술전형 합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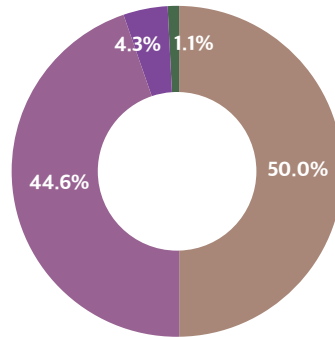
모의논술 대상 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을 통해 기출문제, 예시답안, 평가기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꼭 참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논술고사 준비에 논술가이드북을 참고하였나요? 참고하였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참고하였다 78.0%
- 참고하지 않았다 22.0%



- 매우 도움되었다 50.0%
- 도움되었다 44.6%
- 보통이었다 4.3%
- 도움되지 않았다 1.1%
-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0.0%

논술가이드북은 응시자 대부분이 참고한 자료로, 설문에 따르면 78%의 학생들이 논술고사 응시 전에 가이드북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중 94.6%가 '도움되었다' 또는 '매우 도움되었다'고 응답해, 가이드북이 실질적인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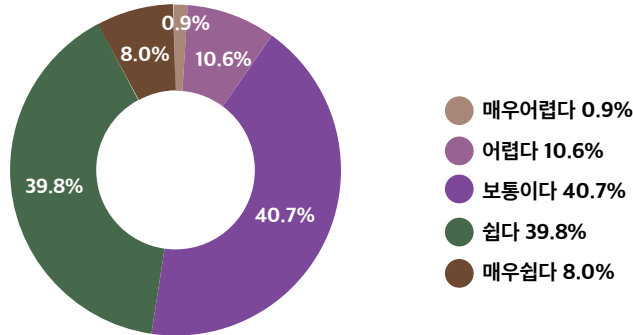
논술가이드북에는 전년도 본 논술과 올해 모의논술의 문항, 예시답안, 평가기준뿐만 아니라 출제위원장들의 준비 팁까지 포함되어 있어,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정독해야 할 자료입니다.

특히, 올해 가이드북뿐만 아니라 최근 3년치 이상을 참고하면 출제 경향, 답안 작성 방식, 평가 기준 등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 논술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II. 선배들이 들려주는 합격 가이드



Q4. 타 대학 논술전형에 응시한 경우, 우리대학 논술고사 난도가 타 대학 대비 어떠했나요?



다른 대학의 논술고사와 함께 준비한 학생들의 의견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논술고사는 '보통'(40.7%) 또는 '쉬운 편'(39.8%)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우 쉬움'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약 88%가 비교적 부담 없는 난이도로 평가한 셈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문항이 배경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문제 유형이 다년간 정형화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모의논술과 논술가이드북을 통해 문제 유형과 평가 기준이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선배들의 생생한 후기!



Q. 고사당일 어떤점이 기억에 남나요?

- #310관 ○ 엄청난 스케일에 놀랐다 / 310관을 보니 꼭 합격하고 싶어졌다 / 강의실이 새 것 같아 너무 좋았다 / 건물이 너무 커서 길을 헤맸다 / 위치를 알려주는 바닥스티커가 인상깊었다
- #캠퍼스 ○ 오르막이 심했다 /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이동이 편했다 / 정문의 푸양이가 귀여웠다 / 건물 외벽의 건물 번호 현수막이 도움되었다
- #안내학생 ○ 안내요원이 친절했다 / 수험생이 많았는데도 통제를 잘했다 / 안내요원이 없었으면 길을 헤맸을 거다 / 안내요원의 격려가 자신감을 북돋았다
- #감독 ○ 타 대학 대비 감독인원이 많았다 / 진행방식이 엄격했다 / 따뜻한 인사말에 마음이 녹았다 / 감독이 친절했다 / 개봉하면 흔적이 남는 보안봉투가 인상깊었다

III. 선배들이 들려주는 합격 가이드



키워드로 알아보는 선배들의 생생한 후기!



Q. 고사당일 어떤점이 기억에 남나요?

#이동

사람이 너무 많았다 / 차량으로 이동했는데 움직이기 어려웠다 / 지원자 외 캠퍼스 입장을 통제해 좋았다 / 도로 혼잡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기분

마지막 논술고사라 마음이 편했다 / 타 대학 응시후 보게 되어 긴장이 덜했다 / 대학 캠퍼스로 들어가는 설렘이 있었다 / 현수막의 응원 문구가 좋았다

#고사장

고사장 내부가 깔끔했다 / 진지한 분위기였다 / 고사장이 더웠다



Q. 논술전형 합격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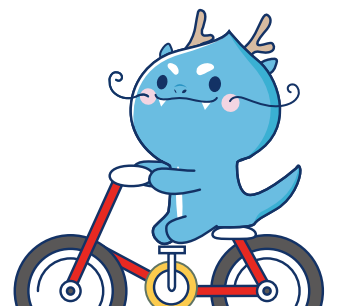
시간 배분이 중요하다 / 글씨는 깔끔할수록 좋다 / 가이드북을 통한 문제 유형과 답안 작성 흐름을 완벽히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 개인별 긴장감 해소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인문논술

주제를 잘 반영한 키워드 선택이 중요하다 / 지문의 핵심을 잘 찾아내 정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글자수 제한이 엄격해서 잘 맞춰야 한다 / 문장을 압축할 구성력과 어휘력이 있어야 한다 / 간결하고 깔끔하게 답변을 구조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앙대 만의 문항 형식을 학습해야 한다 / 평소 다양한 문학작품 많이 읽으면 좋다 / 지문 그대로가 아닌, 나만의 어휘를 활용해 문장을 작성해야 한다 / 추상적 표현을 나열하는건 최소화 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두괄식 서술해야 한다

#수리논술

한번에 집중해서 풀어내야 한다 / 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빠르게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야 한다 / 수학 기본기를 탄탄히 해야 한다 / 기출문제의 예시답안을 정독하자 / 계산을 서술할 부분과 생략할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보자 / 답안 작성칸이 좁다 /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이과정을 작성해 부분점수를 얻어야 한다 / 1번 문항 확통부터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게 좋다 /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 배분을 잘해야 한다



IV. 학과 미리보기

- | | |
|----------------|----|
| 1.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28 |
| 2. 공공인재학부 | 29 |
|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 30 |
| 4. 글로벌금융전공 | 31 |



도시계획·부동산학과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학과 소개

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도시, 주택,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 도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도시계획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의 개발, 금융, 투자,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합니다. 도시와 부동산, 두 영역을 균형 있게 아우르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본 학과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배우나요?



도시계획학과 부동산학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 및 실무 과목을 이수하며, 학문적 깊이와 실무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분야: 부동산경제론, 부동산개발론, 부동산금융론 등
- 도시계획 분야: 도시관리론, 지속가능도시론, 도시재정비론 등
- 융합 및 응용 과목: 감정평가, 교통 및 환경 정책, 도시빅데이터 분석, GIS 등

우리 대학만의 강점은?



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60년의 전통을 가진 학과로, 국내 도시계획 및 부동산 분야에서 활약 중인 풍부한 동문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 매년 동문 초청 강연을 통해 산업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접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도시학술제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직접 연구를 기획 발표하고, 교수님들과의 토론을 통해 학문적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학생에게는 학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대학원 프로그램(공동학위제)으로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및 클리블랜드주립대와의 연계를 통해 학문적 확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공기업:** LH공사, SH공사, GH공사, LX공사 등
- **민간 부문:** 건설사, 시공사, 시행사, 부동산 개발 및 자산운용사 등
- **금융 및 IT:** 리츠 관련 기업, 금융사, 투자개발사, 프롭테크 기업, 도시빅데이터 분석회사 등
- **연구 및 공공기관:**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정책 연구기관

또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 자격증 취득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으며,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을 통해 국토연구원 등 다양한 정책연구기관, 대학, 공공부문 등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학과 소개

공공인재학부는 공공 분야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대학교의 특성화 학부입니다.

행정학과 정책학을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행복을 증진하고 공익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기릅니다.

학생들은 모의 국무회의, 학회 활동, 공모전 참여 등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통해 선후배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높은 수상 실적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행정고사·입법고사·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언론, 법조계, 대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나요?



공공인재학부의 교육과정은 공공 분야에서 요구되는 이론과 실무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추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과학 전반의 이론과 실재를 아우르는 종합적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정책 기획 및 집행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1학년: 행정학개론, 정책학개론, 경제학개론, 정치학개론, 법학개론 등 사회과학 기초 이론

2~4학년:

- **연구 방법 과목:** 행정통계분석, 행정조사방법론, 정책평가론 등 실증 연구 방법론
- **법학 관련 과목:** 헌법, 민법, 형법 등 공공분야 법적 소양 함양
- **데이터 역량 과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분석 관련 과목 운영

우리 대학만의 강점은?



공공인재학부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계전공 및 교육과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공기업관리 연계전공:** 공기업 관련 법·행정·경영·회계·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
- **공공규범 연계전공:** 법률 전문가로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과학 기반의 법학 소양 강화
- **공공관리 연계전공:** 행정·경제·법 등 정책 집행에 필요한 실무 역량 중심 교육
- **공공데이터사이언스행정학 마이크로디그리(신설 예정):**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 교육 과정

졸업 후 진로

- **공무원:** 5급 공무원, 7·9급 공무원 등
- **대학원 진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일반대학원(석사·박사 과정)
-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공사 등
- **민간부문:** 대기업, 언론사, 정책 관련 컨설팅 회사 등

이론과 실무,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육을 통해 공공 분야의 다양한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 폭넓은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학과 소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1958년 국내 최초의 신문학과로 출발해, 이후 신문방송학과와 신문방송학부를 거쳐 2014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로 개편되었습니다.

언론정보와 디지털미디어콘텐츠를 아우르는 융합 교육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갖춘 교수진이 교육을 담당하며, 학생들은 다양한 실습과 교내외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협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부 대표 학술제인 '미컴제', 청소년 미디어 캠프 'Shift U's' 등 사회 기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문 장학사업과 진로 릴레이 특강을 통해 현업 멘토링 및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합니다.

학문적 심화와 현장 경험을 모두 중시하는 교육 체계는 타 대학 유사 전공과 차별화되는 본 학부의 강점입니다.

무엇을 배우나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의 교육과정은 미디어 현상을 이론과 실습 양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1학년:** 커뮤니케이션 이론, 디지털 미디어 입문, 비판적 리터러시 등 기초 과목
- **2학년 이후:** 언론정보 전공 /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전공으로 세분화 취재보도론, 방송화법, 뉴미디어심리학,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등

모든 교과목은 사회학, 심리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등 인접 학문과 연계되어 미디어 현상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 인턴십 학기제(최대 15학점)와 현장 실습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만의 강점은?



- **최신 장비와 시설:** 4K 카메라, VR/AR 촬영 장비, 방음 스튜디오 등 산업 표준 장비를 갖춘 미디어센터 운영
- **산학 및 글로벌 인턴십:** 학부-기업-기관 3자 협약으로 운영되는 장기 현장실습, 미국 WEST 프로그램, KOTRA 등과 연계된 해외 실무 경험 제공
-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 언론, 방송, IT,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들이 멘토링과 취업연계 지원, 동문 장학금 지원
- **프로젝트 중심 학습:** '미컴제', 청소년 미디어 캠프 등 기획부터 제작·발표까지 전 과정을 경험
-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스마트강의실 확충 등

졸업 후 진로

- **언론 및 방송 분야:** 기자, PD, 작가, 아나운서 등
- **콘텐츠 및 디지털 미디어 분야:** OTT 콘텐츠 매니저, 광고·PR·디지털마케팅 전문가, 데이터 저널리스트 등
- **정책 및 공공 커뮤니케이션 분야:** 정책 커뮤니케이터, IT 플랫폼 콘텐츠 기획 및 운영 등

우리 대학은 각 방송사 및 종합일간지의 대학 출신 통계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졸업생 취업률도 동종 학과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 인턴십 수료자는 조기 채용이나 연봉 우대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글로벌 인턴십 경험자는 해외 미디어 기업 및 다국적 광고대행사 등에서 활약 중입니다.

더 나아가 대학원 진학을 통해 언론정보학, 커뮤니케이션 빅데이터 등 연구 중심 커리어로도 진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금융전공

Global Finance Major



학과 소개

글로벌금융전공은 세계화와 금융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춰, 국제 금융 이론과 실무 역량을 고루 갖춘 금융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실무 중심 교육과 국제적 안목을 겸비한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 의(義)와 참(眞)의 정신 아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금융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춘 금융 인을 양성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제 금융 시장 기여를 지향합니다.



무엇을 배우나요?



4년간 체계적으로 설계된 단계별 교육과정을 통해 금융 전문가로서의 기초부터 고급 역량까지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론적 전문성과 금융 현장 대응 능력을 모두 갖춘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 **1학년:** 미시경제론, 거시경제론, 회계학원론, 금융수학, 금융통계, 수학적 방법론 등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Debate in Business 과목을 통해 금융 이슈에 대한 토론·발표 능력도 배양
- **2학년:** 재무관리, 투자론, 금융경제론, 기업재무론, 관리회계 등 재무금융 핵심 과목과 조직행동론, 경영과학 등 일반경영 과목 병행
- **3~4학년:** 파생상품론, 국제재무관리, 금융공학, 보험시장론, 세무/재무회계연습, Fixed Income Securities, 핀테크와 퀀트 트레이닝 등 실무 중심 고급과정 운영

우리 대학만의 강점은?



글로벌금융전공은 소수정예 선발제도를 통해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도 높은 맞춤형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중앙대학교의 특성화 전공입니다.

- **독립 커리큘럼 운영:** 경영학부 소속이지만 독립된 교육과정을 통해 일반 경영 전공과 차별화된 금융 특화 교육이 가능하며, 국제 금융 핵심 과목에 집중합니다.
- **영어 기반 교육과정 운영:** 다수의 전공 과목이 영어로 진행되어 국제 금융 실무에 필요한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실무 중심 커리큘럼:** 파생상품, 핀테크, 금융공학 등 금융업계 최신 이슈를 반영한 과목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진로 지도:** 소규모 정원의 장점을 살려 교수와의 긴밀한 피드백 및 진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며, 실제로 높은 금융권 취업률과 진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은행업:** 시중은행, 외국계은행, 개발금융기관 등에서 여신·수신·외환 업무
- **증권업:**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에서 리서치, 운용, 영업 업무
- **보험업:** 생명·손해보험사에서 언더라이팅,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등 수행
- **공공기관 및 정책 분야:**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정책·규제 관련 업무
- **민간 기업 및 컨설팅:** 대기업 재무팀, 회계법인, 컨설팅사 등에서 재무·회계 전문가로 활동
- **신금융 분야:** 핀테크 기업, 디지털 금융 서비스 기업 등으로의 진출 증가 추세

또한, 졸업생들은 CFA, FRM 등 국제 공인 자격증과 국내 금융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지속적인 커리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IV.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 | | |
|------------------------------|----|
| 1. 2026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 34 |
| 2. 2026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문제해설 | 40 |
| 3. 2026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 46 |
| 4. 2026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문제해설 | 52 |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1. 2026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풍패동의 동쪽은 바로 늪암곡이다. 그 물이 서쪽으로 흘러 소월석 아래에 이르러 대천으로 들어간다.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아주 가깝지만 특별한 점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하루는 마을 주민 황 씨가 아우 자익에게 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가 몹시 기이하다고 말해 주었다. 자익이 내게 알려 주기에 마침내 혼연히* 함께 갔다. 골짜기 어귀에 인가 서너 채가 보였다. 산을 등진 채 물을 두르고 있어 발두둑과 울타리가 썰렁했다. 문을 두드리니 한 구부정한 노인이 나왔다. 수염과 눈썹이 온통 희어 칠팔십 세쯤 되어 보였다. 폭포가 어디에 있는지 문자 지름길을 가리키며 들어가는 길을 아주 자세히 일러 주었다. 하지만 폭포로 들어가는 길은 놓쳐서 찾지 못하고 그저 시내를 따라 올라갔다. 얼마 못 가 바로 산등성이로 점점 올라가기만 했다. 마침내 폭포가 있는 곳은 알 수가 없었다.

얼마 후 사람 소리가 들렸다. 자익이 먼저 폭포를 보았다 하므로 어찌 생겼더냐고 문자 검은 바위가 드높게 겹겹이 포개져 있는데 약한 물줄기가 이를 덮어 조금도 불만한 게 없다고 했다. 내가 입을 벌려 웃으며 말했다.

“이런 것을 구경하자고 발품을 팔겠는가?”

마침내 가지 않고 비탈진 바위 위에서 밥을 먹었다. 자익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이후로 마땅히 천하에 말만 번드레한 못 믿을 인사들이 더욱 싫어질 듯합니다.”

황 씨에게 속고 만 것을 유감스러워한 것이었다.

후에 길을 알려 준 노인을 만나 본 것을 얘기하자 노인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 위에 진짜 폭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냇물을 따라 내려가면 길이 끊겨 도달할 수가 없습지요. 꼭 산등성이를 따라서 가야 이르러 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야 내가 갔던 길이 바른 길인 줄을 알았다. 좀 더 애를 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하지만 또한 폭포의 실상이 자익이 본 것 정도에 그치지 않음이 기뻛고, 잠시 남겨 두어 뒷날의 유람할 거리로 삼게 된 것이 더욱 여운이 있음을 깨달았다.

* 혼연히: 기쁘거나 반가워 기분이 좋게.

(나)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이다.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농사를 짓겠다고 아버지에게 선언한다.

그 겨울의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그해 봄 나는 대관령으로 갈 수 있었다. 서른이 넘어 언젠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농사의 어떤 점이 좋아 어릴 때부터 농군이 되지 못해 그렇게 애를 썼느냐고.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나이에 농사를 짓는 일에 어떤 매력을 느꼈다가보다는 나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때 내게는 농사만이 나를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게 그때로선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거기에 어른의 조건을 한 가지 더 추가했다.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로써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라고. 겨울이 되면 어른들이 어느 집 사랑이나 뒷방에 모여 목 내기나 담배 내기 화투를 칠 때가 있다. 그때에도 자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은 그 판에 낄 수 있어도 어른 같은 아이는 그 판에 낄 수 없는 것이다. 그게 농경 사회에서의 아이와 어른의 구분이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대로 화투를 칠 수 있는 어른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경제를 가진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농사가 좋아 환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환장했던 것이고,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길이 바로 내겐 농사였던 것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대관령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시작한 나는 첫째 운 좋게 풍작을 거두어 처음으로 큰돈을 손에 쥐게 된다. 이듬해에도 나는 배추와 감자 농사를 지었다

감자 농사는 같은 땅에 지난해보다 수확이 다섯 가마나 더 많았다. 그 수확을 마치고 그 무렵 무엇보다 나를 우울하게 했던 것은 지난 이태 동안의 내 삶에 대한 나 스스로의 생각이었다. 웬지 그 기간 동안 내가 했던 것은 어른 노릇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른 놀이였다는 생각이 자꾸만 내 가슴을 무겁게 한 것이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배추 농사에서 큰돈을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그 생각만은 변함없을 것 같았다.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나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어떤 후회나 소외감처럼 조금씩 내 가슴에 스며들어 오던 것이었다.

(다) 형은 스물일곱 살이었고 동생은 스물두 살이었다.

형은 둔감했고 위태위태하도록 솔직했고, 결국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다. 물론 평소에 동생에 대한 형으로서의 위신 같은 것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미 철들자부터 형을 대하는 동생의 눈언저리와 입가엔 늘 쓴웃음 같은 것이 어리어 있었으니, 하얀 살갗의 여윈 얼굴에 이 쓴웃음은 동생의 오연한* 성미와 잘 어울려 있었다.

사변이 일어나자 형제가 다 군인의 몸이 됐다. 1951년 가을, 제각기 북의 포로로 잡혀 북쪽 후방으로 인계돼 가다가 둘은 터럭 만났다. 해가 질 무렵, 무너진 통천읍 거리에서였다.

형은 대뜸 울음보를 터뜨렸다. 동생도 한순간은 흠칫했으나, 형이 울음을 터뜨리자 난처한 듯 살그머니 외면을 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사흘째 되던 밤부터 형은 경비병에게 얻은 밥 한 덩이를 동생과 나눠 먹고는 한다. 이렇게 지내면서 동생은 형이 울면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게 된다.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다. 바깥은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야하, 눈이 내린다, 눈이,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잣소리처럼 지껄였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 형은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즈음에 와선 늘 그렇듯 별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난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는데이. 너두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야.”

하고는 혜죽이 웃었다. 동생은 놀라 돌아다보았다. 동생의 눈에선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며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 절룩거리졌다.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잣소리 지껄이지 않았다. 평소의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런 낫색이었다.

그날 밤, 바깥엔 함박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두 날 형이라구 글지 마라, 어영?”

여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두 말구 모르는 체만 해, 꼭.”

동생은 부러 큰 소리로,

“야하, 눈이 내린다.”

형이 지껄일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꼭 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그러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걸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 걸이를 주의해 보아 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라졌다.

*오연(傲然)한: 태도가 거만하거나 그렇게 보일 정도로 담담한.

(라) 생각해 보니 나는 불행한 인간이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 이태왕* 전하의 용안을 뵈는 일이 없고, 한일 합방 후 신일본인*이 되었다고 해도 일본 왕의 얼굴을 본 일도 없다. 또 조선 역사를 배운 일이 없고, 일본 역사도 배운 것이 없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그러니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일왕 즉위식이 열린 날은 아침 7시부터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나는 마지막에 서 있었다. 나는 무기를 감추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내 주머니에 한문과 한글이 섞인 서울에서 온 편지가 있는 것을 보더니 아무 설명도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는 것이었다.

유치장 안에 들어가 보니 나처럼 죄 없이 검속*에 걸려 잡혀 온 사람이 34명이나 있었다. 그날 밤으로 받은 석방되었고, 나머지도 다음 날 아침에 석방되었다. 그런데 나만은 풀어 주지 않았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가? 일왕의 얼굴을 본답시고 하루 벌여 하루 먹고사는 처지에, 돈을 써 가며 유치장을 구경하러 온 꼴이 되고 말았다.

구속된 지 11일째 되는 날 내가 재촉을 했더니 누가 나를 불러냈다. 그는 “네가 가지고 있던 편지를 읽을 수 없어 지금까지 풀어 주지 못했는데, 네가 일본어로 읽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일본어로 읽어 주니 좀 있다가 석방해 주었다.

그 후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만 났다. 이러한 상황에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다. 뚜렷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도 자연히 변화하였다. 무엇이든 나를 이끌어 주는 것이 있으면 뛰어들고 싶었고, 심지어는 사상운동에 몸을 바치자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 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조선인이니까 조선 독립운동에 몸을 바쳐서 우리 2천만 동포를 위해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태왕(李太王): 1910년 국권 피탈 때 일제가 상왕(上王)인 고종을 이르던 말.

*신일본인(新日本人): 일본의 지배를 받던 조선의 국민들이 일본인으로 동화된 상태를 이르는 말.

*검속(檢束): 예전에, 공공의 안전을 해롭게 하거나 죄를 지을 염려가 있는 사람을 경찰에서 잠시 가두던 일.

(마) 나는 저녁마다 물에 탈색제 한 알을 풀어 세수했고 내가 얼마나 하해졌나 보려고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푸

른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 내 얼굴을 볼 때면 가슴이 설레었다. 내가 바라는 건 미국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었다. 그냥 한국 사람만큼만 하얗게, 아니 노랗게 되기를 바랐다. 여름 숲의 뱀처럼, 가을 낙엽 밑의 나방처럼 나에게도 보호색이 필요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왕따가 되지 않고, 달리기를 할 때 뒤에서 밀치고 싶은 까만 방해물로 비치지 않도록.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탈색제를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세수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세숫대야의 물을 거칠게 쏟아 버렸다. 고개를 들어 보니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탈색제가 든 비닐봉지를 수돗가에 내동댕이쳤다. 그날 밤, 오랜만에 술 냄새를 풍기며 자정이 다 되어 들어온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베이비 로션을 꺼냈다. 그리고는 붉은 실핏줄이 보일 만큼 껍질이 벗겨진 내 얼굴에 로션을 잔뜩 발라 주었다. 투박하고 거친 손바닥으로 뺨을 아프도록 쓰다듬으면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더니 잠들기 직전까지 흐느꼈다. 가끔 뜻을 알 수 없는 네팔 말을, 몹시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바) 사회적 소수자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차별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인종, 민족, 국적, 신체 등이 주류 집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주류 집단보다 권력, 재산 등의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는 데 불리한 위치에 있다. 사회적 소수자는 시대, 장소, 소속 집단의 범주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 가면 그 나라에서는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수가 적다고 해서 사회적 소수자인 것은 아니다.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흑인 및 유색 인종이 소수인 백인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때 소수인 백인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소수자로 다루어졌던 장애인, 여성 이외에도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고정 관념과 편견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로 나타나고,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적인 사회생활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소수자를 편견과 차별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 마틴 루서 킹이 암살된 1968년 4월 4일, 미국 아이오와의 초등학교 교사인 제인 엘리엇은 ‘차별 수업’을 시도하기로 마음먹는다. 학생들이 모두 백인이었기 때문에 엘리엇은 아이들을 푸른 눈과 갈색 눈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첫 수업에서는 갈색 눈 집단에 ‘우월하다’며 특혜를 주었고, 푸른 눈 집단은 ‘열등하다’며 차별하였다. 다음 수업에서는 반대로 우월한 집단이 푸른 눈의 아이들로 바뀌었다. 그런데 차별을 먼저 경험한 푸른 눈의 아이들은 우월한 집단이 되어서도 열등한 갈색 눈의 아이들에게 훨씬 더 너그러웠다. 소수자가 되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 더욱 조심할 줄 알았던 것이다. 아이들은 애초 차별 수업의 규칙에 동의하였음에도, 정작 실험이 계속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차별하는 쪽과 차별받는 쪽 모두를 경험하는 가혹한 이 실험을 통해 아이들은 차별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지를 깨닫게 된다.

(아) 크리스티안 쇤더비 엡센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내추럴 디스오더>는 야코브라는 인물이 자전적인 연극을 준비하는 3년 반 동안의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2016년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한 살 때 한국에서 덴마크 가정에 입양된 27살 야코브는 선천성 뇌성마비로 말이 어눌해 알아듣기 어렵고 몸

은 왜소하고 약하지만, 정신은 누구보다 건강하다. 그는 저널리스트를 꿈꾸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생각한다. 야코브는 연극의 관객들에게 “장애인인 내가 살 권리가 있는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정상성’의 기준에 의문을 표한다. 감독은 “서로 간의 차이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고, 자신을 정상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반성 없는 자기 중심성에서 모든 증오와 전쟁이 비롯된다.”라며 이 영화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자) 수오재(守吾齋),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 장기*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들을 뽑아 갈 수 있겠는가? 나무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다 한들 하나들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그런데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퐁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백주 도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새재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장기: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정약용은 신유박해 때문에 1801년 3월에서 10월까지 장기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차)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며 석류, 귤, 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삼남(三南):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세 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

*말총: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

*망건(綱巾): 상투를 튼 사람이 머리에 두르는 그물처럼 생긴 물건. 보통 말총으로 만든다.

(카)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 이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희소성이라고 한다. 희소성은 사람들의 욕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어떤 자원의 양이 적더라도 그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자원은 희소성이 없다. 반면, 어떤 자원의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그보다 더 많다면 그 자원은 희소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희귀하다고 해서 희소한 것이 아니며, 흔하다고 해서 희소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희귀는 개체의 수나 양이 아주 적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오리너구리는 절대적인 숫자가 적어 희귀 동물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희귀한 것이 모두 희소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희소는 절대적인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오리너구리는 희귀한 동물이지만 오리너구리를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면 희소하지는 않다. 원래 리튬은 희귀한 금속이었다. 그런데 휴대 전화와 노트북, 전기차 등에 리튬 전지를 사용하면서 리튬은 희귀할 뿐 아니라 희소한 금속이 되어 버렸다.

(타)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천 리라서 인구가 적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은 물산*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과 물에서 얻어지는 이로운 물건을 전부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道)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날마다 쓰는 물건과 할 일을 팽개쳐 둔 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 자기에게 물건이 없어 쓰지 못하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는 산호의 물건값이 매겨져 있지 않다. 이런 우리 풍속이 정녕 검소함을 좋아하여 그렇겠는가? 단지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것에 불과하다.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기에 재물을 만들어 낼 방법을 모르고, 재물을 만들어 낼 방법을 모르기에 백성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 간다.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 버린다. 마찬가지로 비단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그 결과로 베를 짜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을 박대하므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사농공상(士農工商) 네 부류의 백성이 너 나 할 것 없이 다 곤궁하게 살기에 서로를 구제할 길이 없다. 나라 안에 보물이 있어도 강토* 안에서는 용납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로 흘러간다. 남들은 날마다 부유해지건만 우리는 날마다 가난해지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다. 지금 종각이 있는 종로 네거리의 연달아 있는 시장 점포의 거리가 1리가 채 안 된다. 중국에서는 내가 거쳐 간 시골 마을의 점포가 대개 몇 리에 걸쳐 있었다. 또 거기에 운송되는 물건의 번성함과 품목의 다양함이 모두 온 나라의 물건으로도 미치지 못한다. 점포 한 개가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한 것이 아니라 물자가 유통되느냐 유통되지 못하느냐에 따른 결과이다.

*물산(物産):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물품.

*강토(疆土): 나라의 경계 안에 있는 땅.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동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라)의 ‘경찰’과 제시문 (마)의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공통적 문제점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마)의 ‘나’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아)와 (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차)의 경제 문제를 제시문 (카)와 (타)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문 (타)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김창협, 「보지 못한 폭포」, 최원식 외 19인, 『국어』, 창비, 2018, 104-105쪽.
- 제시문 (나) 이순원, 「19세」, 정호웅 외 5인, 『문학』, 천재교육, 2019, 21-29쪽.
- 제시문 (다) 이호철, 「나상」, 이승원 외 8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9, 28-32쪽.
- 제시문 (라) 이봉창,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 한철우 외 6인, 『독서』, 비상교육, 2019, 51-56쪽.
- 제시문 (마) 김재영, 「코끼리」, 이삼형 외 7인, 『국어』, 지학사, 2018, 250쪽.
- 제시문 (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손영찬 외 4인, 『사회·문화』, 미래엔, 2018, 148-149쪽.
「사회 불평등 문제와 해결 방안」, 김영순 외 4인, 『사회·문화』, 교학사, 2019, 144-146쪽.
- 제시문 (사)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신형민 외 4인, 『사회·문화』, 비상교육, 2018, 139-141쪽.
- 제시문 (아) 「삶에서 불평등하다는 것, 정의롭다는 것」, 구정화 외 9인, 『통합사회』, 천재교육, 2018, 198-203쪽.
- 제시문 (자) 정약용, 「수오재기」, 박영목 외 11인, 『국어』, 천재교육, 2018, 195-197쪽.
- 제시문 (차) 박지원, 「허생전」, 박안수 외 11인, 『국어』, 비상교육, 2018, 324-336쪽.
- 제시문 (카)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유종열 외 4인, 『경제』, 비상교육, 2019, 14-16쪽.
「희소성과 경제 문제」, 김진영 외 4인, 『경제』, 미래엔, 2019, 13-14쪽.
- 제시문 (타) 박제가, 「시장과 우물」, 서혁 외 6인, 『독서』, 좋은책신사고, 2019, 25-27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창비, 2018)에 실린 김창협의 「보지 못한 폭포」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문학의 갈래’ 단원 중 교술 갈래로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교술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여 문학 활동을 하는 것이다. 「보지 못한 폭포」는 폭포와 관련한 경험과 감상을 드러낸 고전 수필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가)에는 ‘나’가 폭포를 보러 가게 된 계기와 그 이후 생각이 변화하게 된 바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육, 2019)에 실린 이순원의 「19세」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문학과 삶’ 단원 중 ‘문학의 기능과 가치’ 영역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하는 것이다. 「19세」는 한 소년이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나)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농사를 지으러 대관령으로 간 ‘나’가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성장의 의미를 깨닫고 선부른 판단을 후회하게 된 내용이 담겨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좋은책신사고, 2019)에 실린 이호철의 「나상」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문학의 본질과 구조’ 단원 중 ‘문학의 유기적 구조’ 영역에 수록되어 있으며,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나상」은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끌려가던 두 형제의 이야기를 담은 액자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다)에는 형과 동생이 포로 후송과정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보살피며 관계가 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독서』(비상교육, 2019)에 수록된 이봉창의 「이제야 참조선인이 되었다」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2. 소통하는 독서’ 단원 중 ‘(2)추론적 읽기’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며 읽고,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것이다. 「이제야 참조선인이 되었다」는 이봉창 의사가 자신이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과정을 밝히기 위해 쓴 옥중 수기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라)에는 죄없이 유치장에 갇히는 경험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마침내 조선 독립운동에 몸을 바치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이봉창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국어』(지학사, 2018)에 실린 김재영의 「코끼리」의 발췌문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 수정하였다. 이 글은 ‘6. 문학 너머로’ 단원 중 ‘단원 통합 활동’에 실렸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코끼리」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13살의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그리는 소설이다. 제시문 (마)에는 얼굴을 하얗게 만들고 싶은 ‘나’가 등장한다. 해당 제시문에는 ‘나’가 탈색제를 물에 풀어 세수를 하다가 아버지에게 들려 훈이 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사회·문화』(미래엔, 2018)에 실린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와 고등학교 『사회·문화』(교학사, 2019)에 실린 「사회 불평등 문제와 해결 방안」을 출제 의도에 맞게 발췌하여 일부 편집한 글이다.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는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단원 중 ‘(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글은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문제와 그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불평등 문제와 해결 방안」은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단원 중 ‘(3) 사회 불평등 문제와 해결방안’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발췌한 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유형과 해결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사회·문화』(비상교육, 2018) 교과서에 실린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한 글이다.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단원 중 '(1)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양상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발췌한 부분은 윌리엄 피터스의 저작 『푸른 눈, 갈색 눈』에 소개된 차별 수업에 관한 실험 내용으로 여기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개념이 갖는 상대성과 폭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천재교육, 2018) 교과서에 실린 다큐멘터리 영화의 요약본을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하여 발췌한 글이다. 해당 글은 크리스티안 윈더비 엡센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내추럴 디스오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해당 영화는 한국계 입양인 청년인 야코브가 3년 반 동안 자전적인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을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시문 (아)를 통해 신체적 차이로 인해 비정상성을 규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국어』(천재교육, 2018) 교과서에 실린 「수오재기」를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한 글이다. 「수오재기」는 문학의 갈래와 구조 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제시한 제시문 (자)는 수오재라는 집의 이름을 통해 자신을 지키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 깨달은 바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문 (차)는 고등학교 『국어』(비상교육, 2018) 교과서에 실린 박지원의 「허생전」을 출제 의도에 맞게 발췌하여 일부 편집한 글이다. 해당 작품은 조선 후기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긴 고전 소설로, 제시문 (차)에는 허생이라는 개인의 매점매석에 속수무책으로 좌우되는 나라 경제의 허약성에 대한 풍자가 담겨 있다.

제시문 (카)는 고등학교 『경제』(비상교육, 2019) 교과서의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단원과 고등학교 『경제』(미래엔, 2019) 교과서의 「희소성과 경제 문제」 단원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수정한 글이다.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는 경제생활에서 희소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제시문 (카)에는 희소성과 희귀성을 차이를 수요와 공급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시문 (타)는 고등학교 『독서』(좋은책신사고, 2019) 교과서에 실린 박제가의 「시장과 우물」을 출제 의도에 맞게 발췌하여 일부 편집·수정한 글이다. 제시문 (타)에서 박제가는 시장을 우물에 비유하여 적극적인 소비 진작과 상업 장려를 통해서 나라 경제를 풍요롭고 부강하게 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동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에는 등장인물이 이동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가)의 '나'는 독특한 폭포가 있다는 말에 흥미가 생겨 폭포로 향한다. 그러나 불품없는 풍경이라는 아우의 말에 몹시 실망했다가, 진실을 알고 중도 포기한 것을 아쉬워하지만 이후 진풍경을 구경하리라 생각을 바꾼다. (나)의 '나'는 하루빨리 경제력을 갖춘 어른이 되려고 농사를 짓기로 결심하고 대관령으로 간다. 하지만 그곳에서 돈을 벌어도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제 나이에 걸맞은 경험을 놓치고 있음을 깨닫고 선부른 결심을 후회하게 된다. (다)의 형과 동생은 전쟁 중 포로로 잡혀 북쪽으로 끌려간다. 미숙했던 형은 의젓하게 동생을 보살피게 되고, 냉정했던 동생은 형의 애정을 느껴며 우애가 깊어진다. (라)의 '나'는 일왕 즉위식에서 한글 편지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유치장에 잡혀간다. 석방 후 '나'는 부끄러움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민족을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먹는다. 이처럼 사람들은 호기심, 조금의 판단, 포로 후송, 편견과 차별 등을 계기로 이동을 하고, 사고의 전환, 반성과 성찰, 유대감 형성, 정체성 자각 등의 내적 변화를 겪는다. [566자]

[문제 2] 제시문 (라)의 '경찰'과 제시문 (마)의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공통적 문제점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마)의 '나'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아)와 (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바)에 따르면 사회적 소수자는 내재적 특성이 아닌 주류 집단과의 차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상대적 개념으로, 사회적 배경과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사)는 '차별 수업'을 통해 차별의 주체와 대상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잔인성을 보여준다. (라)의 '경찰'과 (마)의 '적이 필요한 아이들'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근거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하는 주류 집단의 구성원이다.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과 '아이들'의 폭력적 행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아)는 신체적 차이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자)에 따르면 타인의 인정을 좇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기 자신을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의 '나'는 자신의 피부색을 부정하며 바꾸고 싶어 한다. (아)와 (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나는 자신의 피부색이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본인을 비정상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기보다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54자]

[문제 3] 제시문 (차)의 경제 문제를 제시문 (카)와 (타)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문 (타)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차)에서는 허생이 과일을 매점매석하자 큰 시장에서조차 과일이 부족해져 가격이 금세 폭등하고, 허생이 다시 말총을 사재기하자 전국의 망건값이 급격히 오른다. (카)에 따르면 이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양보다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현저히 감소하여 자원의 희소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타)에 따르면 가격이 급등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원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 경제의 반공함 때문이다. 사람들이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겨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유통하지 않아 재물이 희소해지고 희소한 재물이 결국 희귀해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여 생산을 촉진하고 상업을 장려해야 한다. [343자]

채점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32점+8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동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32점 만점)

(가) 계기: 독특한 폭포가 있다는 말에 흥미가 생김.(3점)

변화: 볼품없는 풍경이라는 아우의 말에 멈춰 실망했다가, 진실을 알고 중도 포기한 것을 아쉬워하지만 이후 진풍경을 구경하리라 생각을 바꿈.(5점)

(나) 계기: 하루빨리 경제력을 갖춘 어른이 되려고 농사를 짓기로 결심함.(3점)

변화: 돈을 벌어도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제 나이에 걸맞은 경험을 놓치고 있음을 깨닫고 선부른 결심을 후회하게 됨.(5점)

(다) 계기: 형과 동생은 전쟁 중 포로로 잡혀 북쪽으로 끌려감.(3점)

변화: 미숙했던 형은 의젓하게 동생을 보살피게 되고, 냉정했던 동생은 형의 애정을 느끼며 우애가 깊어짐.(5점)

(라) 계기: 일왕 즉위식에서 한글 편지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유치장에 잡혀감.(3점)

변화: 석방 후 '나'는 부끄러움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민족을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먹음.(5점)

- 네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이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동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모두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이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동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이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동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이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동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부여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이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동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3점),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점)

① 이동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한 핵심적 표현: 호기심, 조급한 판단, 포로 후송, 편견과 차별

② 이동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에 대한 핵심적 표현: 사고의 전환, 반성과 성찰, 유대감 형성, 정체성 자각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이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동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찾아 제시(32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20점+20점)

1) 제시문 (라)의 ‘경찰’과 제시문 (마)의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공통적 문제점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하시오. (20점: 5점+10점+5점)

- ① 제시문 (라)의 ‘경찰’과 제시문 (마)의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기술: ‘경찰’과 ‘적이 필요한 아이들’은 모두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향해 차별과 폭력을 행하는 주류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함.(5점)
 - ②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라)의 ‘경찰’과 (마)의 ‘적이 필요한 아이들’을 비판: (바)와 (사)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는 내재적 특성이 아닌 주류 집단과의 차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차별의 주체와 대상 모두에게 가해지는 잔인한 폭력이라는 점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함.(10점)
-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과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폭력적 행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함.(5점)

2) 제시문 (마)의 ‘나’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아)와 (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20점: 8점+12점)

- ① (자)와 (아)의 핵심적 논지를 파악: (아)를 통해 신체적 차이를 통해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것이 자의적이라는 점을 논의함.(4점) (자)의 화자가 타인의 인정보다 스스로에 대해 확신을 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설명함.(4점)
- ② 제시문 (마)의 ‘나’의 상황 파악 및 나에게 필요한 자세 제시: 제시문 (마)의 ‘나’ 자신의 피부색을 부정하고 바꾸고 싶어 한다는 점을 언급함.(2점) (아)와 (자)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마)의 나에게 필요한 자세를 논리. 본인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정상이라고 규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논의하고,(5점)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술함.(5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기술적 측면 (-5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제시문 (라)의 ‘경찰’과 제시문 (마)의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토대로 비판하고 있는지 평가 (20점): 3~20점 부여	제시문 (라)와 (마)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 역시 통합적 관점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3~8점
		제시문 (라)와 (마)의 논지를 파악하고 있으나,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되지 못하고 각각 서술되었을 경우	9~15점
		(라)와 (마)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비판하였을 경우	16~20점
	② 제시문 (아)와 (자)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제시문 (마)의 ‘나’에게 필요한 자세를 서술했는지 평가 (20점): 3~20점 부여	제시문 (아)와 (자)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나’에게 필요한 자세 역시 잘 서술되지 않았을 경우	3~8점
제시문 (아)와 (자)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했으나, ‘나’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로 연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나’에게 필요한 자세는 잘 정리했으나 제시문 (아)와 (자)의 논지가 부정확한 경우		9~15점	
제시문 (아)와 (자)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에게 필요한 자세 역시 잘 서술되었을 경우		16~20점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330~35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2점+8점)

1) 제시문 (카)와 (타)에 제시된 희소성과 희귀성의 개념적 차이를 활용하여 제시문 (차)에 나타난 허생의 매점매석 행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12점 만점): 3~12점

- ① 허생이 과일을 매점매석하자 큰 시장에서조차 과일이 부족해져 가격이 급세 폭등하고, 허생이 다시 말총을 사재기하자 전국의 망건값이 급격히 오른다는 상황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함.
 ② (카)에 따르면 이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양보다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현저히 감소하여 자원의 희소성이 높아졌기 때문임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함.
 ③ (타)에 따르면 가격이 급등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자원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 경제의 빈궁함 때문임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함.

- 과일값과 망건값이 급등한 현상과 그 현상의 표면적 원인과 근본적 원인을 모두 서술한 경우, 12점 부여
- 과일값과 망건값이 급등한 현상과 그 현상의 표면적 원인과 근본적 원인을 서술했으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9점 부여
- 과일값과 망건값이 급등한 현상과 그 현상의 표면적 원인과 근본적 원인 중 어느 하나만 서술했을 경우, 6점 부여

2) 제시문 (타)의 주장을 토대로 제시문 (차)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내었는지 평가한다. (8점 만점): 3~8점

① 허생의 매점매석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나라 경제의 빈궁함에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그 해결 방안은 재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여 생산을 촉진하고 상업을 장려하는 것임을 명확히 서술해야 함.

- 제시문 (카)에서 검소함을 가장한 궁핍함이 문제임을 찾아내고, 재화의 소비, 생산의 촉진, 상업 및 유통 장려라는 세 가지 핵심적 내용들을 모두 찾아 썼을 경우, 6~8점
- 제시문 (카)의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제시문에서 파악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3~5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제시문 (카)와 (타)에 제시된 희소성과 희귀성의 개념적 차이를 활용하여 제시문 (차)에 나타난 허생의 매점매석 행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였는지 평가함: 3~12점 부여	과일값과 망건값이 급등한 현상과 그 현상의 표면적, 근본적 원인 중 어느 하나만 서술했을 경우	3~6점
		과일값과 망건값이 급등한 현상과 그 현상의 표면적, 근본적 원인을 서술했으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7~9점
		과일값과 망건값이 급등한 현상과 그 현상의 표면적, 근본적 원인을 모두 서술한 경우	10~12점
	② 제시문 (타)의 주장을 토대로 제시문 (차)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내었는지 평가함: 3~8점 부여	제시문 (카)의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제시문에서 파악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3~5점
	제시문 (카)에서 검소함을 가장한 궁핍함이 문제임을 찾아내고, 재화의 소비, 생산의 촉진, 상업 및 유통 장려라는 세 가지 핵심적 내용들을 모두 찾아 썼을 경우	6~8점	

2. 2026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풍패동의 동쪽은 바로 늪암곡이다. 그 물이 서쪽으로 흘러 소월석 아래에 이르러 대천으로 들어간다.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아주 가깝지만 특별한 점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하루는 마을 주민 황 씨가 아우 자익에게 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가 몹시 기이하다고 말해 주었다. 자익이 내게 알려 주기에 마침내 혼연히* 함께 갔다. 골짜기 어귀에 인가 서너 채가 보였다. 산을 등진 채 물을 두르고 있어 발두둑과 울타리가 썰렁했다. 문을 두드리니 한 구부정한 노인이 나왔다. 수염과 눈썹이 온통 희어 칠팔십 세쯤 되어 보였다. 폭포가 어디에 있는지 묻자 지름길을 가리키며 들어가는 길을 아주 자세히 일러 주었다. 하지만 폭포로 들어가는 길은 놓쳐서 찾지 못하고 그저 시내를 따라 올라갔다. 얼마 못 가 바로 산등성이로 점점 올라가기만 했다. 마침내 폭포가 있는 곳은 알 수가 없었다.

얼마 후 사람 소리가 들렸다. 자익이 먼저 폭포를 보았다 하므로 어찌 생겼더냐고 묻자 검은 바위가 드높게 겹겹이 포개져 있는데 약한 물줄기가 이를 덮어 조금도 불مان한 게 없다고 했다. 내가 입을 벌려 웃으며 말했다.

“이런 것을 구경하자고 발품을 팔겠는가?”

마침내 가지 않고 비탈진 바위 위에서 밥을 먹었다. 자익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이후로 마땅히 천하에 말만 번드레한 못 믿을 인사들이 더욱 싫어질 듯합니다.”

황 씨에게 속고 만 것을 유감스러워한 것이었다.

후에 길을 알려 준 노인을 만나 본 것을 얘기하자 노인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 위에 진짜 폭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냇물을 따라 내려가면 길이 끊겨 도달할 수가 없습지요. 꼭 산등성이를 따라서 가야 이르러 굽어볼 수가 있답니다.”

그제야 내가 갔던 길이 바른 길인 줄을 알았다. 좀 더 애를 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하지만 또한 폭포의 실상이 자익이 본 것 정도에 그치지 않음이 기뻛고, 잠시 남겨 두어 뒷날의 유람할 거리로 삼게 된 것이 더욱 여운이 있음을 깨달았다.

* 혼연히: 기쁘거나 반가워 기분이 좋게.

(나)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이다.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농사를 짓겠다고 아버지에게 선언한다.

그 겨울의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그해 봄 나는 대관령으로 갈 수 있었다. 서른이 넘어 언젠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농사의 어떤 점이 좋아 어릴 때부터 농군이 되지 못해 그렇게 애를 썼느냐고.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나이에 농사를 짓는 일에 어떤 매력을 느꼈다가보다는 나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때 내게는 농사만이 나를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게 그때로선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거기에 어른의 조건을 한 가지 더 추가했다.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로써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겨울이 되면 어른들이 어느 집 사랑이나 뒷방에 모여 묵 내기나 담배 내기 화투를 칠 때가 있다. 그때에도 자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은 그 판에 질 수 있어도 어른 같은 아이는 그 판에 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게 농경 사회에서의 아이와 어른의 구분이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대로 화투를 칠 수 있는 어른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경제를 가진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농사가 좋아 환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환장했던 것이고,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길이 바로 내겐 농사였던 것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대관령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시작한 나는 첫째 운 좋게 풍작을 거두어 처음으로 큰돈을 손에 쥐게 된다. 이듬해에도 나는 배추와 감자 농사를 지었다.

감자 농사는 같은 땅에 지난해보다 수확이 다섯 가마나 더 많았다. 그 수확을 마치고 그 무렵 무엇보다 나를 우울하게 했던 것은 지난 이태 동안의 내 삶에 대한 나 스스로의 생각이었다. 웬지 그 기간 동안 내가 했던 것은 어른 노릇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른 놀이였다는 생각이 자꾸만 내 가슴을 무겁게 한 것이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배추 농사에서 큰돈을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그 생각만은 변함없을 것 같았다.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나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어떤 후회나 소외감처럼 조금씩 내 가슴에 스며들어 오던 것이었다.

(다) 형은 스물일곱 살이었고 동생은 스물두 살이었다.

형은 둔감했고 위태위태하도록 솔직했고, 결국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다. 물론 평소에 동생에 대한 형으로서의 위신 같은 것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미 철들자부터 형을 대하는 동생의 눈언저리와 입가엔 늘 쓴웃음 같은 것이 어리어 있었으니, 하얀 살갗의 여윈 얼굴에 이 쓴웃음은 동생의 오연한* 성미와 잘 어울려 있었다.

사변이 일어나자 형제가 다 군인의 몸이 됐다. 1951년 가을, 제각기 북의 포로로 잡혀 북쪽 후방으로 인계돼 가다가 들은 터럭 만났다. 해가 질 무렵, 무너진 통천읍 거리에서였다.

형은 대뜸 울음보를 터뜨렸다. 동생도 한순간은 흠칫했으나, 형이 울음을 터뜨리자 난처한 듯 살그머니 외면을 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사흘째 되던 밤부터 형은 경비병에게 얻은 밥 한 덩이를 동생과 나눠 먹고는 한다. 이렇게 지내면서 동생은 형이 울면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게 된다.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다. 바깥은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야하, 눈이 내린다, 눈이,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잣소리처럼 지껄였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 형은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즈음에 와선 늘 그렇듯 별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난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는데이. 너두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아야.”

하고는 혜죽이 웃었다. 동생은 놀라 돌아다보았다. 동생의 눈에선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며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 절룩거리졌다.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잣소릴 지껄이지 않았다. 평소의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런 낫색이었다.

그날 밤, 바깥엔 함박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두 날 형이라구 글지 마라, 어영?”

어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두 말구 모르는 체만 해, 꼭.”

동생은 부러 큰 소리로,

“야하, 눈이 내린다.”

형이 지껄일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꼭 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그리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건넌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의해 보아 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라졌다.

*오연(傲然)한: 태도가 거만하거나 그렇게 보일 정도로 담담한.

(라) 생각해 보니 나는 불행한 인간이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 이태왕* 전하의 용안을 뵈는 일이 없고, 한일 합방 후 신일본인*이 되었다고 해도 일본 왕의 얼굴을 본 일도 없다. 또 조선 역사를 배운 일이 없고, 일본 역사도 배운 것이 없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그러니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일왕 즉위식이 열린 날은 아침 7시부터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나는 마지막에 서 있었다. 나는 무기를 감추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내 주머니에 한문과 한글이 섞인 서울에서 온 편지가 있는 것을 보더니 아무 설명도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는 것이었다.

유치장 안에 들어가 보니 나처럼 죄 없이 검속*에 걸려 잡혀 온 사람이 34명이나 있었다. 그날 밤으로 받은 석방되었고, 나머지도 다음 날 아침에 석방되었다. 그런데 나만은 풀어 주지 않았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가? 일왕의 얼굴을 본답시고 하루 벌여 하루 먹고사는 처지에, 돈을 써 가며 유치장을 구경하러 온 꼴이 되고 말았다.

구속된 지 11일째 되는 날 내가 재촉을 했더니 누가 나를 불러냈다. 그는 “네가 가지고 있던 편지를 읽을 수 없어 지금까지 풀어 주지 못했는데, 네가 일본어로 읽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일본어로 읽어 주니 줌 있다가 석방해 주었다.

그 후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만 났다. 이러한 상황에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다. 뚜렷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도 자연스럽게 변화하였다. 무엇이든 나를 이끌어 주는 것이 있으면 뛰어들고 싶었고, 심지어는 사상운동에 몸을 바치자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 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조선인이니까 조선 독립운동에 몸을 바쳐서 우리 2천만 동포를 위해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태왕(李太王): 1910년 국권 피탈 때 일제가 상왕(上王)인 고종을 이르던 말.

*신일본인(新日本人): 일본의 지배를 받던 조선의 국민들이 일본인으로 동화된 상태를 이르는 말.

*검속(檢束): 예전에, 공공의 안전을 해롭게 하거나 죄를 지을 염려가 있는 사람을 경찰에서 잠시 가두던 일.

(마) 나는 저녁마다 물에 탈색제 한 알을 풀어 세수했고 내가 얼마나 하얗게 보려고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푸른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 내 얼굴을 볼 때면 가슴이 설레었다. 내가 바라는 건 미국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었다. 그냥 한국 사람만큼만 하얗게, 아니 노랗게 되기를 바랐다. 여름 숲의 뱀처럼, 가을 낙엽 밑의 나방처럼 나에게도 보호색이 필요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이 필요한 아이들

의 왕따가 되지 않고, 달리기를 할 때 뒤에서 밀치고 싶은 까만 방해물로 비치지 않도록.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탈색제를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세수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세숫대야의 물을 거칠게 쏟아 버렸다. 고개를 들어 보니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탈색제가 든 비닐봉지를 수돗가에 내동댕이쳤다. 그날 밤, 오랜만에 술 냄새를 풍기며 자정이 다 되어 들어온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베이비 로션을 꺼냈다. 그리고는 붉은 싹뿔이 보일 만큼 껌질이 벗겨진 내 얼굴에 로션을 잔뜩 발라 주었다. 투박하고 거친 손바닥으로 뺨을 아프도록 쓰다듬으면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더니 잠들기 직전까지 흐느꼈다. 가끔 뜻을 알 수 없는 네팔 말을, 몹시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바) 사회적 소수자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차별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인종, 민족, 국적, 신체 등이 주류 집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주류 집단보다 권력, 재산 등의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는 데 불리한 위치에 있다. 사회적 소수자는 시대, 장소, 소속 집단의 범주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 가면 그 나라에서는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수가 적다고 해서 사회적 소수자인 것은 아니다.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흑인 및 유색 인종이 소수인 백인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때 소수인 백인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소수자로 다루어졌던 장애인, 여성 이외에도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고정 관념과 편견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로 나타나고,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적인 사회생활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소수자를 편견과 차별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 마틴 루서 킹이 암살된 1968년 4월 4일, 미국 아이오와의 초등학교 교사인 제인 엘리엇은 ‘차별 수업’을 시도하기로 마음먹는다. 학생들이 모두 백인이었기 때문에 엘리엇은 아이들을 푸른 눈과 갈색 눈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첫 수업에서는 갈색 눈 집단에 ‘우월하다’며 특혜를 주었고, 푸른 눈 집단은 ‘열등하다’며 차별하였다. 다음 수업에서는 반대로 우월한 집단이 푸른 눈의 아이들로 바뀌었다. 그런데 차별을 먼저 경험한 푸른 눈의 아이들은 우월한 집단이 되어서도 열등한 갈색 눈의 아이들에게 훨씬 더 너그러웠다. 소수자가 되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 더욱 조심할 줄 알았던 것이다. 아이들은 애초 차별 수업의 규칙에 동의하였음에도, 정작 실험이 계속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차별하는 쪽과 차별받는 쪽 모두를 경험하는 가혹한 이 실험을 통해 아이들은 차별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지를 깨닫게 된다.

(아) 크리스티안 쉰더비 엡센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내추럴 디소더>는 야코브라는 인물이 자전적인 연극을 준비하는 3년 반 동안의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2016년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한 살 때 한국에서 덴마크 가정에 입양된 27살 야코브는 선천성 뇌성마비로 말이 어눌해 알아듣기 어렵고 몸은 왜소하고 약하지만, 정신은 누구보다 건강하다. 그는 저널리스트를 꿈꾸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생각한다. 야코브는 연극의 관객들에게 “장애인이 내가 살 권리가 있는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회가 만들

어 놓은 '정상성'의 기준에 의문을 표한다. 감독은 “서로 간의 차이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고, 자신을 정상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반성 없는 자기 중심성에서 모든 증오와 전쟁이 비롯된다.”라며 이 영화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자) 수오재(守吾齋),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 장기*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일나무들을 뽑아 갈 수 있겠는가? 나무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다 한들 하나들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그런데 천하 만물 중에 잃어 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쫄쫄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백주 도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새재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장기: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정약용은 신유박해 때문에 1801년 3월에서 10월까지 장기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동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라)의 ‘경찰’과 제시문 (마)의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공통적 문제점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마)의 ‘나’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아)와 (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풀이 과정 포함)

- 어느 여행자가 11만 원의 경비 이내에서 직선 도로를 따라 최대한 먼 거리를 이동하려고 한다. 직선 도로는 A회사의 택시 또는 B회사의 택시만이 다닐 수 있다. 한 택시에서 내리면 내린 장소에서 바로 다음 택시를 탈 수 있으며, 같은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택시를 탈 수 있다. 여행자는 경비 이내에서 전체 이동 거리의 기댓값을 가장 크게 하도록 각 회사의 택시 이용 횟수를 결정한다.
 - 한 번 탈 때마다, A회사 택시 요금은 4만 원이며, 이동 거리는 0.8의 확률로 9km, 0.2의 확률로 12km이다.
 - 한 번 탈 때마다, B회사 택시 요금은 3만 원이며, 이동 거리는 평균이 8km, 표준편차가 4k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문제 3] 여행자가 32km 이상 이동할 확률을 구하시오. 필요할 경우 오른쪽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시오. (단, 표준정규분포표의 확률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반올림하였음)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z	$P(0 \leq Z \leq z)$
0.25	0.1
0.50	0.2
0.75	0.3
1.50	0.4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김창협, 「보지 못한 폭포」, 최원식 외 19인, 『국어』, 창비, 2018, 104-105쪽.
- 제시문 (나) 이순원, 「19세」, 정호웅 외 5인, 『문학』, 천재교육, 2019, 21-29쪽.
- 제시문 (다) 이호철, 「나상」, 이승원 외 8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9, 28-32쪽.
- 제시문 (라) 이봉창,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 한철우 외 6인, 『독서』, 비상교육, 2019, 51-56쪽.
- 제시문 (마) 김재영, 「코끼리」, 이삼형 외 7인, 『국어』, 지학사, 2018, 250쪽.
- 제시문 (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손영찬 외 4인, 『사회·문화』, 미래엔, 2018, 148-149쪽.
「사회 불평등 문제와 해결 방안」, 김영순 외 4인, 『사회·문화』, 교학사, 2019, 144-146쪽.
- 제시문 (사)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신형민 외 4인, 『사회·문화』, 비상교육, 2018, 139-141쪽.
- 제시문 (아) 「삶에서 불평등하다는 것, 정의롭다는 것」, 구정화 외 9인, 『통합사회』, 천재교육, 2018, 198-203쪽.
- 제시문 (자) 정약용, 「수오재기」, 박영목 외 11인, 『국어』, 천재교육, 2018, 195-197쪽.,
- 문제 3 출전
 - 확률과 통계 II-1-2 확률의 덧셈정리 ((주)좋은책신사고, 고성은 외 5인, 2023; pp.50-53)
 - 확률과 통계 II-1-3 확률의 덧셈정리 ((주)금성출판사, 배종숙 외 6인, 2023; pp.58-60)
 - 확률과 통계 II-1-2 확률의 덧셈정리 ((주)지학사, 홍성복 외 10인, 2021; pp.51-56)
 - 확률과 통계 II-1-2 확률의 덧셈정리 ((주)교학사, 권오남 외 14인, 2020; pp.53-56)
 - 확률과 통계 III-1-4 정규분포 ((주)좋은책신사고, 고성은 외 5인, 2023; pp.97-103)
 - 확률과 통계 III-1-5 정규분포 ((주)금성출판사, 배종숙 외 6인, 2023; pp.58-60)
 - 확률과 통계 III-1-4 정규분포 ((주)지학사, 홍성복 외 10인, 2021; pp.101-109)
 - 확률과 통계 III-1-4 정규분포 ((주)교학사, 권오남 외 14인, 2020; pp.102-108)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창비, 2018)에 실린 김창협의 「보지 못한 폭포」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문학의 갈래’ 단원 중 교술 갈래로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교술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여 문학 활동을 하는 것이다. 「보지 못한 폭포」는 폭포와 관련한 경험과 감상을 드러낸 고전 수필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가)에는 ‘나’가 폭포를 보러 가게 된 계기와 그 이후 생각이 변화하게 된 바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육, 2019)에 실린 이순원의 「19세」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문학과 삶’ 단원 중 ‘문학의 기능과 가치’ 영역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하는 것이다. 「19세」는 한 소녀가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나)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농사를 지으러 대관령으로 간 ‘나’가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성장의 의미를 깨닫고 설부른 판단을 후회하게 된 내용이 담겨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좋은책신사고, 2019)에 실린 이호철의 「나상」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문학의 본질과 구조’ 단원 중 ‘문학의 유기적 구조’ 영역에 수록되어 있으며,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나상」은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끌려가던 두 형제의 이야기를 담은 액자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다)에는 형과 동생이 포로 후송과정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보살피며 관계가 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독서』(비상교육, 2019)에 수록된 이봉창의 「이제야 참조선인이 되었다」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2. 소통하는 독서’ 단원 중 ‘(2)추론적 읽기’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며 읽고,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것이다. 「이제야 참조선인이 되었다」는 이봉창의 시자가 자신이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과정을 밝히기 위해 쓴 옥중 수기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라)에는 죄없이 유치장에 갇히는 경험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마침내 조선 독립운동에 몸을 바치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이봉창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국어』(지학사, 2018)에 실린 김재영의 「코끼리」의 발췌문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 수정하였다. 이 글은 ‘6. 문학 너머로’ 단원 중 ‘단원 통합 활동’에 실렸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코끼리」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13살의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그리는 소설이다. 제시문 (마)에는 얼굴을 하얗게 만들고 싶은 ‘나’가 등장한다. 해당 제시문에는 ‘나’가 탈색제를 물에 풀어 세수를 하다가 아버지에게 들켜 혼이 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사회·문화』(미래엔, 2018)에 실린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와 고등학교 『사회·문화』(교학사, 2019)에 실린 「사회 불평등 문제와 해결 방안」을 출제 의도에 맞게 발췌하여 일부 편집한 글이다.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는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단원 중 '(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글은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문제와 그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불평등 문제와 해결 방안」은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단원 중 '(3) 사회 불평등 문제와 해결방안'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발췌한 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유형과 해결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사회·문화』(비상교육, 2018) 교과서에 실린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한 글이다.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단원 중 '(1)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양상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발췌한 부분은 윌리엄 피터스의 저작 『푸른 눈, 갈색 눈』에 소개된 차별 수업에 관한 실험 내용으로 여기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개념이 갖는 상대성과 폭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천재교육, 2018) 교과서에 실린 다큐멘터리 영화의 요약본을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하여 발췌한 글이다. 해당 글은 크리스티안 쇤더비 옌센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내추럴 디스오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해당 영화는 한국계 입양인 청년인 야코브가 3년 반 동안 자전적인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을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시문 (아)를 통해 신체적 차이로 인해 비정상을 규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국어』(천재교육, 2018) 교과서에 실린 「수오재기」를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한 글이다. 「수오재기」는 문학의 갈래와 구조 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제시한 제시문 (자)는 수오재라는 집의 이름을 통해 자신을 지키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 깨달은 바가 제시되어 있다.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동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에는 등장인물이 이동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가)의 '나'는 독특한 폭포가 있다는 말에 흥미가 생겨 폭포로 향한다. 그러나 볼품없는 풍경이라는 아우의 말에 몹시 실망했다가, 진실을 알고 중도 포기한 것을 아쉬워하지만 이후 진풍경을 구경하리라 생각을 바꾼다. (나)의 '나'는 하루빨리 경제력을 갖춘 어른이 되려고 농사를 짓기로 결심하고 대관령으로 간다. 하지만 그곳에서 돈을 벌어도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제 나이에 걸맞은 경험을 놓치고 있음을 깨닫고 선부른 결심을 후회하게 된다. (다)의 형과 동생은 전쟁 중 포로로 잡혀 북쪽으로 끌려간다. 미숙했던 형은 의젓하게 동생을 보살피게 되고, 냉정했던 동생은 형의 애정을 느끼며 우애가 깊어진다. (라)의 '나'는 일왕 즉위식에서 한글 편지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유치장에 잡혀간다. 석방 후 '나'는 부끄러움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민족을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먹는다. 이처럼 사람들은 호기심, 조금의 판단, 포로 후송, 편견과 차별 등을 계기로 이동을 하고, 사고의 전환, 반성과 성찰, 유대감 형성, 정체성 자각 등의 내적 변화를 겪는다. [566자]

【문제 2】 제시문 (라)의 '경찰'과 제시문 (마)의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공통적 문제점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마)의 '나'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아)와 (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바)에 따르면 사회적 소수자는 내재적 특성이 아닌 주류 집단과의 차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상대적 개념으로, 사회적 배경과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사)는 '차별 수업'을 통해 차별의 주체와 대상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잔인성을 보여준다. (라)의 '경찰'과 (마)의 '적이 필요한 아이들'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근거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하는 주류 집단의 구성원이다.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과 '아이들'의 폭력적 행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아)는 신체적 차이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자)에 따르면 타인의 인정을 쫓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기 자신을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의 '나'는 자신의 피부색을 부정하며 바꾸고 싶어 한다. (아)와 (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나는 자신의 피부색이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본인을 비정상으로 규정하지 말고,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기보다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54자]

[문제 3 예시답안]

▶ A회사 택시를 한 번 탈 때 이동 거리의 기댓값은 $0.8 \times 9 + 0.2 \times 12 = 9.6$ km이다. B회사 택시를 한 번 탈 때 이동 거리의 기댓값은 8km이다.

▶ A회사 택시를 탄 횟수를 a , B회사 택시를 탄 횟수를 b 라 하자. 여행자는 11만 원을 가지고 있으며 택시 A의 요금이 4만 원,

택시 B의 요금이 3만 원이므로 a, b 는 $4a + 3b \leq 11$ 을 만족해야 한다.

▶ 위 부등식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 (a, b) 의 가능한 쌍은 $(0, 0), (1, 0), (2, 0), (0, 1), (1, 1), (2, 1), (0, 2), (1, 2), (0, 3)$ 이다.

▶ A회사 택시를 a 회, B회사 택시를 b 회 탔을 때 전체 이동 거리의 기댓값은 $9.6a + 8b$ 이다.

(3)에서 구한 (a, b) 쌍 중 이 값이 가장 큰 쌍은 $(2, 1)$ 이므로, 여행자는 A회사 택시를 두 번, B회사 택시를 한 번 타는 선택을 한다.

▶ A회사 택시를 두 번 타면, $0.8 \times 0.8 = 0.64$ 의 확률로 18km, $2 \times 0.8 \times 0.2 = 0.32$ 의 확률로 21km,

$0.2 \times 0.2 = 0.04$ 의 확률로 24km를 이동한다.

이때 32km 이상 이동하기 위해서는 B회사 택시가 각각 14km, 11km, 8km 이상을 이동해야 한다.

▶ B회사 택시를 타고 간 이동 거리를 연속확률변수 X km라 하면 X 는 평균 8, 표준편차 4인 정규분포를 따르므로

$$P(X \geq k) = P\left(Z \geq \frac{k-8}{4}\right) \text{ 이다.}$$

따라서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면 $P(X \geq 14), P(X \geq 11), P(X \geq 8)$ 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X \geq 14) = P\left(Z \geq \frac{14-8}{4}\right) = P(Z \geq 1.5) = 0.5 - P(0 \leq Z \leq 1.5) = 0.1,$$

$$P(X \geq 11) = P\left(Z \geq \frac{11-8}{4}\right) = P(Z \geq 0.75) = 0.5 - P(0 \leq Z \leq 0.75) = 0.2,$$

$$P(X \geq 18) = P\left(Z \geq \frac{8-8}{4}\right) = P(Z \geq 0) = 0.5$$

▶ 따라서 여행자가 32km 이상 이동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0.64 \times 0.1) + (0.32 \times 0.2) + (0.04 \times 0.5) = 0.148$$

채점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32점+8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동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32점 만점)

(가) 계기: 독특한 폭포가 있다는 말에 흥미가 생김.(3점)

변화: 불품없는 풍경이라는 아우의 말에 멈춰 실망했다가, 진실을 알고 중도포기한 것을 아쉬워하지만 이후 진풍경을 구경하리라 생각을 바꿈.(5점)

(나) 계기: 하루빨리 경제력을 갖춘 어른이 되려고 농사를 짓기로 결심함.(3점)

변화: 돈을 벌어도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제 나이에 걸맞은 경험을 놓치고 있음을 깨닫고 선부른 결심을 후회하게 됨.(5점)

(다) 계기: 형과 동생은 전쟁 중 포로로 잡혀 북쪽으로 끌려감.(3점)

변화: 미숙했던 형은 의외하게 동생을 보살피게 되고, 냉정했던 동생은 형의 애정을 느끼며 우애가 깊어짐.(5점)

(라) 계기: 일왕 즉위식에서 한글 편지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유치장에 잡혀감.(3점)

변화: 석방 후 '나'는 부끄러움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민족을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먹음.(5점)

- 네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이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동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모두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이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동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둘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이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동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둘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이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동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둘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부여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이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동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3점),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점)

① 이동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한 핵심적 표현: 호기심, 조급한 판단, 포로 후송, 편견과 차별

② 이동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에 대한 핵심적 표현: 사고의 전환, 반성과 성찰, 유대감 형성, 정체성 자각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이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동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찾아 제시(32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20점+20점)

1) 제시문 (라)의 ‘경찰’과 제시문 (마)의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공통적 문제점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하시오. (20점: 5점+10점+5점)

- ① 제시문 (라)의 ‘경찰’과 제시문 (마)의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기술: ‘경찰’과 ‘적이 필요한 아이들’은 모두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향해 차별과 폭력을 행하는 주류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함.(5점)
- ②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라)의 ‘경찰’과 (마)의 ‘적이 필요한 아이들’을 비판: (바)와 (사)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는 내재적 특성이 아닌 주류 집단과의 차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차별의 주체와 대상 모두에게 가해지는 잔인한 폭력이라는 점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함.(10점)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과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폭력적 행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함.(5점)

2) 제시문 (마)의 ‘나’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아)와 (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20점: 8점+12점)

- ① (자)와 (아)의 핵심적 논지를 파악: (아)를 통해 신체적 차이를 통해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것이 자의적이라는 점을 논의함.(4점) (자)의 화자가 타인의 인정보다 스스로에 대해 확신을 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설명함.(4점)
- ② 제시문 (마)의 ‘나’의 상황 파악 및 나에게 필요한 자세 제시: 제시문 (마)의 ‘나’ 자신의 피부색을 부정하고 바꾸고 싶어 한다는 점을 언급함.(2점) (아)와 (자)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마)의 나에게 필요한 자세를 논의함. 본인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정상이라고 규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논의하고.(5점)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5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내용적 측면 (40점)	① 제시문 (라)의 ‘경찰’과 제시문 (마)의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토대로 비판하고 있는지 평가 (20점): 3~20점 부여	제시문 (라)와 (마)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 역시 통합적 관점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3~8점
		제시문 (라)와 (마)의 논지를 파악하고 있으나,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되지 못하고 각각 서술되었을 경우	9~15점
		(라)와 (마)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비판하였을 경우	16~20점
	② 제시문 (아)와 (자)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제시문 (마)의 ‘나’에게 필요한 자세를 서술했는지 평가 (20점): 3~20점 부여	제시문 (아)와 (자)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나’에게 필요한 자세 역시 잘 서술되지 않았을 경우	3~8점
		제시문 (아)와 (자)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했으나, ‘나’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로 연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나’에게 필요한 자세는 잘 정리했으나 제시문 (아)와 (자)의 논지가 부정확한 경우	9~15점
		제시문 (아)와 (자)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에게 필요한 자세 역시 잘 서술되었을 경우	16~20점

[문제 3] 20점 만점

[문제 3 출제 의도]

확률변수의 확률분포로부터 원하는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은 논리적 사고 및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경영경제계열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다. 본 문제는 이산확률변수의 값에 따라 연속확률변수가 가져야 하는 값의 범위를 구하고 정규분포를 활용하여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문제 3 채점 기준]

- 1) (2, 1)을 구하면 +6점
- 2) A회사 택시를 2번 탔을 때 이동 거리의 확률분포를 정확히 계산하면 +6점
- 3) B회사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최소 거리와 그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면 +6점
- 4) 답을 정확히 계산하면 +2점

※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1~2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함

※ 각 부분에서 바르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총점 20점 이내에서 ±1점 추가 점수 부여 가능함.

V.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1. 인문사회계열	59
2. 인문사회계열 문제해설	66
3. 경영경제계열	72
4. 경영경제계열 문제해설	78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1. 인문사회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땅 투기로 졸부가 된 최 사장이 마을 저수지 사용권을 얻어 양어장을 만든 후 이장 익삼을 통해 알게 된 동네 건달 임종술에게 저수지 감시원직을 맡아 달라고 부탁한다.

“사람이 운수 불길해서 잠시 잠깐 이런 촌구석에 처백혀 있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보들 마시오! 에이 여보쇼들, 저수지 감시가 뭐요, 감시가! 내가 게우 오만 원짜리 폰수배끼 안 되는 것 같소? 나 임종술이, 이래 봐야도 왕년에는 사장님 소리가장 들어 본 사람ियो!”

“내가 자네라면은 나는 기왕 낚시질하는 집에 비단잉어에다 월급 봉투를 한목에 같이 낚어 올리겠네. 그냥 소일 삼아서 감시원 완장 차고 물 가상으로 왔다리 갔다리 허면서…….”

“완장요!” 완장이란다! 왼쪽 팔에다 끼고 다니는 그 완장 말이다!

고단했던 생애를 통하여 직접으로 간접으로 인연을 맺어 온 술한 완장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종술의 뇌리를 스쳤다. 완장의 나라, 완장에 얽힌 무수한 사연들로 점철된 완장의 역사가 바야흐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종술의 가슴을 유혹하고 있었다.

어느 시기나 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노력 앞에는 언제나 완장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완장 앞에서는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이였다. 완장 때문에 녹아나는 건 늘 제 쪽이였다. 제각각 색깔 다르고 글씨도 다른 그 술한 완장들에 그간 얼마나 많은 한을 품어 왔던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완장들을 얼마나 또 많이 선망해 왔던가.

아들한테서 저수지의 감시원으로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육순이 내일모레인 운암댁은 삼 년 묵은 체증이 내려앉는 듯한 상쾌함을 맛보았다. 월급 오만 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다.

“허는 일도 별로 없구만요. 그저 감시원 완장이나 차고 슬슬 바람 쐬기 겸 대벗독이나…….”

어머니가 느끼는 기쁨이 여간만 큰 것이 아닌 줄 익히 아는지라 종술은 그 기쁨을 더욱 배가할 요량으로 대수롭지 않은 척 무심히 지껄임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

그러나 운암댁의 귀에는 그 말이 결코 무심하게 들리지가 않았다.

“뭣이여야? 완장이여?” 너무도 놀란 나머지 운암댁은 눈앞이 다 캄캄해 왔다.

“너 그것 안 돌르고 감시원 헐 수는 없겠냐?”

당치도 않은 말씀이였다.

“에이 참! 어머니는 동네서 사람대접 조깨 받고 살라고 그러는 아들이 그렇게도 여영 못마땅허요?”

“돌아가신 양반 생각이 나서 안 그러냐.”

아버지 말이 나오는 바람에 종술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완장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것도 다아 지 핏줄 탓인갑다.”

“그 완장하고 이 완장은 엄연히 승질부터가 다르단 말이요!”

훗김에 종술은 그에 또 몽니*를 부리고 말했다.

*몽니: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

(나) [앞부분의 줄거리] 새로 파수꾼이 된 소년 ‘다’는 망루가 세워진 황야로 온다. 파수꾼 ‘가’가 망루 위에서 이리 떼가 몰려온다고 외치면 파수꾼 ‘나’는 망루 아래에서 북을 두드려 마을에 알린다. 어느 날 파수꾼 ‘다’는 처음부터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적은 편지를 운반인을 통해 촌장에게 보낸다.

촌장 이것, 네가 보낸 거니?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마을은 늘 안전했어.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다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촌장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애,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다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촌장 그것 봐.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촌장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다 꼭 약속하시는 거죠?

촌장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리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 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몰려갔다!

촌장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떼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양철 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망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촌장 애, 나 좀 보자. (한갓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너한테는 안됐지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다 …… 네?

촌장 마을엔 오지 마라.

다 (침묵)

촌장 그럼, 잘 있거라.

(다) [앞부분의 줄거리] ○○씨가 재개발된다는 소문을 듣고 이번 기회에 집을 장만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권 씨는 무리하게 거금 이십만 원을 마련하여 철거민의 입주 권리를 손에 넣는다. 그러나 입주는 커녕 직장과 재산을 잃고 만신창이가 되고 만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감옥살이까지 한 권 씨는 '나의 집 문간방에서 셋방살이'를 시작하게 된다.

남편이 여전히 별이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권 씨 부인은 어언 해산의 날을 맞게 되었다. 진통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되는 모양이었다. 진통이 너무 길고 악착스러운 데 겁이 났던지 권 씨는 통금이 해제되기도 전에 부인을 업고 비탈길을 내려가느라고 한바탕 복세를 떨었다. 복이 복채 위에 업힌 모양으로 권 씨 내외가 우리 집 문간방을 빠져나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한근심 더는 기분이었다. 미역 근이나 사 놓고 기다리다가 소식이 오면 병원에 가 보라고 아내에게 이르고는 출근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에도 권 씨가 나를 찾아왔다. 때마침 나는 수업이 없어 교무실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중이어서 수위에게 연락을 받아 곧장 학교 정문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십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그는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보태는 것이었다.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어나 모두 위험하대요.” (중략)

그것뿐이었다.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막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산모 통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별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힌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 씨처럼, 이젠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빛을 지고 있음을 펄쩍 깨달았다. 전셋돈도 일종의 빛이라면 빛이었다. 왜 더 좀 일찍이 그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른다.

산부인과에서는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다치는 대로 떨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십만 원을 건네자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지시했다. 요란한 수술치곤 너무도 쉽게 끝났다.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질로 네 댕가 다섯 대째 불을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추예요, 고추!”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에 나는 강보에 싸여 밖으로 나오는 권기용 씨의 차남을 대면할 수 있었다. 제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속없이 잘도 생겼다.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역세디역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동준이 놈을 낳던 날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 갔다.

(라) 상우는 강당을 빌리기 위해 직접 ○○구청을 찾아가 ○○구 공무원과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상우 안녕하세요. 나라 고등학교 일학년 박상우입니다. 저희 사진 동아리에서 ‘아름다운 웃음’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려고 합니다. 전시회 장소로 구청 강당을 빌리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공무원 학생 동아리라면 학교에서도 전시회를 열 수 있을 텐데 굳이 구청 강당을 전시회 장소로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상우 이번 전시회는 우리 학교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거든요. 그래서 전시회 장소로 학교보다는 구청 강당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 우리 구에서는 강당을 주민 공동체 활동 장소로 빌려드립니다. 특정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상업적인 행사에는 강당을 빌려드리지 않아요. 따라서 먼저 사진 전시회가 어떤 성격인지 알아야 강당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우 이번 전시회에서는 고등학생인 저희가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주제로 직접 찍은 사진을 전시할 거예요. 학업 때문에 힘들고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힘을 주자는 의미도 있지요.

공무원 그것만으로는 전시회의 공공성이 좀 약합니다. 공공성 측면에서 좀 더 내세울 것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상우 네, 있습니다. 학생들이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학교 사진 동아리 누리집에 올리면 한 장당 일정 금액이 모금됩니다. 그렇게 모금된 돈은 △△어린이 재단을 후원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이 정도면 전시회의 공공성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면 사진 전시회를 우리 구의 사업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상우 네, 정말 잘 되었네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강당을 빌릴 수 있나요?

공무원 아, 그건 곤란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저녁 10시까지, 주말에는 토요일 저녁 6시까지만 강당을 사용할 수 있고, 일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또한 한 개인 및 단체당 최대 2일까지만 강당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상우 그렇군요. 저희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전시회를 진행해야 해서, 평일에는 저녁 6시 이후부터 3시간씩 강당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시를 하기에 2일은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공무원 그렇다면 다음다음 주에 전시회를 하시지요. 그때는 강당을 사용하는 행사가 없거든요. 학생들이 강당을 빌려 쓰는 시간이 짧기도 하니, 3일간 쓸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상우 전시회 날짜를 바꾸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기간이 4일에서 3일로 줄면 관람객이 적어질 수 있어서 저희에게는 아쉬운 일입니다. 전시회를 여는 3일 동안 최대한 많은 관람객을 모으고 싶은데, 학생들이인 저희로서는 지역 주민에게 전시회를 널리 알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요.

공무원 저희도 바쁘기는 하지만, 전시회의 성격이 좋고 공공성도 충분하니까 홍보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있으니 그 시간을 활용해도 좋겠네요. 제안하신 전시회는 우리 구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기회이므로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상우 저도 동아리 사진 전시회를 열 공간이 마련되어 기쁩니다. 구에서 홍보를 도와주신다면 성공적인 전시회가 될 수 있겠네요.

(마) [앞부분의 줄거리] 아파트 2층에 사는 회사원 '공'은 승강기를 이용하지도 않는데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관리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한다. '공'은 교체 비용 부담이 부담함을 이야기하지만, 관리소장은 승강기 교체 비용 납기일이 다가오고 있고, 계약금을 이미 지불했다고 하며 '공'의 의견을 묵살한다.

“내일이 마감이라서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관리소장이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자 공의 얼굴이 뼈뚜름해졌다. 사방을 막아선 벽이 점점 조여 오는 듯했다.

“승강기가 아니라 승강기입니다.”

꿈쩍도 않는 벽에 대고 주먹질하듯 공이 버럭 소리쳤다.

관리소장이 놀란 표정으로 공을 쳐다보았다. 공은 양복바지 주머니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꺼내 관리소장에게 들이밀었다. 관리소장은 입을 꼭 다문 채 눈만 뒤룩거렸다*.

“승강기를 안 쓴다는 증거 있습니까?”

공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커진 한쪽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더 커졌다. 관리소장의 멱살을 잡지 않기 위해 공은 젓 먹던 힘까지 쥐어짜야 했다. 공은 코를 실룩거리며 관리소장을 노려보았다. 관리소장은 눈만 뒤룩거릴 뿐이었다. 아직 불일이 남았느냐는 태도였다. 뺨뚱해진 공의 얼굴이 파랗게 달아올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 하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래 봤자 소용없을 게 뻔했다. 눈앞에 버티고 있는 벽을, 억지를 부리는 벽을 부숴 버리고 싶었다.

“증거를 대면 될 거 아닙니까?”

관리비 고지서를 낚아챈 공은 관리 사무소를 빠져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다. 사용하지 않는 증거를 대라고?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공은 순식간에 문서를 작성했다. 엘리베이터에서 공을 본 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글을 적고 서명 받을 표를 덧붙였다. 출력한 문서를 들고 집을 나서는 공의 심장은 뺨뚱한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중략)

사달이 난 것은 12층에서였다. 1203호 여자는 공이 설명하는 내내 팔짱을 풀지 않더니 공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뜸 소리쳤다.

“아저씨, 아파트 시세 떨어지면 책임질 거예요?”

“아파트 시세랑 무슨 상관입니까?”

공이 항변했지만 1203호 여자는 눈도 깜짝 안 했다.

“막말로 낡은 엘리베이터 때문에 사고 나서 누가 죽기라도 하면 그쪽에서 책임질 거냐고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엘리베이터를 바꾸지 말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서명 받으러 다니는 그쪽이야말로 지나친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쓰지도 않는데 교체비를 무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뭐요?” 공이 목청을 높였다.

*뒤룩거리다: 크고 둥그런 눈알이 힘 있게 자꾸 움직이다.

(바) 복잡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이 곧 가동된다. 이에 앞서 한국 원자력환경공단이 방폐장 운영의 원칙을 ‘안전’과 ‘신뢰’로 정한 후 시운전 현장을 공개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정보 공개에 나서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시운전 기간 중 공개 관람을 실시해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방사성 폐기물 관련 기술을 쉽게 설명하는 것은 신뢰 구축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여기에 ‘소통의 날’을 지정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방폐장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누리집에 민간이 주도하는 환경 감시 기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폐장 운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사) 해당 지역은 특색 있는 세입자들이 모여들면서 상권이 활성화된 곳이다. 이 지역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에 상권의 활성화에 공헌했던 세입자들이 지역에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구청 책임자 우리 구청에서는 ‘지역 공동체 상호 협력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례에 들어갈 ‘임대료 안정화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해와 협

조를 구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건물주 대표**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 구역 운영'이라는 대원칙에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건물주분들이 법에서 지정한 범위를 넘어서 임대료의 인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재산에 대한 운영과 처분의 권리는 상위법에서 정한 대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 세입자 대표** 건물주 대표님의 말씀도 이해하지만,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이른바 '뜨는 지역'이 된 것은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는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패션, 문화의 중심지라는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주요 상점들이 우리 지역을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 구청 책임자** '임대료 안정화 협약'의 주요 내용이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건물주분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구청에서도 협약에 참여해 주신 건물주분들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세금 면제 혜택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 건물주 대표** 협약에 참여한 건물주분들에게 어떠한 손익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더 많은 건물주들이 동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구청 책임자** 그 부분은 앞으로 차차 조정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참할 의향이 있는 건물주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도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 건물주 대표** 구청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한다면, 이 협약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가능한 한 많은 분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 세입자 대표** 저도 '임대료 안정화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세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구청의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한 저희 입장을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서울과 경기 지역, 50여 개의 지하철 출입구에는 빨간 조끼를 입고 잡지를 파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10개국에서 발간되고 있는 잡지 『빅이슈』의 한국판 판매원들이다. 빅이슈코리아는 비영리를 원칙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재능 기부로 만든 잡지를 노숙인들이 직접 팔게 하면서 자활을 돕는다. 빅이슈코리아의 판매원들은 이 잡지를 2,500원에 사서 5,000원에 판매하는데, 2주간 성실하게 일하면 회사에서 1차로 고시원비를 한 달간 지원하여 거리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이후 6개월간 꾸준히 일하면서 100만 원 상당의 적금을 모으면 임대 주택까지 지원해 준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빅이슈코리아에서 일했던 판매원은 약 400여 명으로 그중 41명이 임대 주택을 얻었고, 15명은 재취업에 성공하여 자립하였다.

(자) 짐 허버드는 미국의 한 통신사 사진 기자로 일했다. 그는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근처의 노숙인들을 주제로 사진을 찍었는데, 어느 날 그가 방문한 노숙인 시설에서 노숙인의 아들이 찍은 사진이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바로 이 지역 아이들에게 사진 찍는 방법을 가르쳐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카메라와 소도구들을 들고 매주 노숙인 시설에 가서 카메라 다루는 법과 사진 찍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노숙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60% 이상이 학교를 그만두고 마약과 폭력에 빠져 있었다. 이 아이들이 사진을 통해 자기를 찾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슈팅 백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1990년 9월, 1년 반 만에 아이들의 사진을 모아 첫 전시회를 열었고, 여기에는 53명 아이의 사진이 전시되었다.

(차) 볶음밥은 자유롭다. 딱 정해진 조리법도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 혹은 같이 먹을 사람이 좋아하는 재료를 추가할 수도 있고 싫어하는 것을 빼 수도 있다. 재료의 조합은 무궁무진하기에 볶음밥은 요리하는 사람의 창의력을 자극한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조합을 통해 새로운 볶음밥을 발견하기도 한다. 밥과 불고기가 만나면 평범한 불고기볶음밥이지만, 불고기볶음밥에 셀러리를 썰어 넣으면 갑자기 평범한 불고기볶음밥이 마법에서 풀려난 왕자님처럼 고급스러운 맛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물론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 제법 어울리는 재료라 생각했는데, 막상 요리해 보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땐 실패에서 배우면 된다. 여러분은 실패를 통해 어떤 재료와 어떤 재료가 서로 어울릴지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이다. 그 실패를 통해 여러분만의 궁극의 볶음밥 요리법을 완성하면, 여러분은 성인의 세계로 하산해도 된다.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부탁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부탁을 수락한 ‘이유’와 수락한 인물에게 발생한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라)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관리소장’의 태도를 비판하고, 제시문 (마)의 ‘공’이 느끼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소장’의 역할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의 ‘빅이슈코리아’와 (자)의 ‘슈팅 백 프로젝트’의 목적의 공통점과 지원방식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제시문 (자)의 아이들이 사진 찍는 방법을 배울 때 지녀야 할 태도를 제시문 (차)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평가목표

인문사회계열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적절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25년 논술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선별하였고,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하였다. 2025 인문사회계열 논술의 핵심 키워드는 다양한 상황에서 '부탁을 수락한 이유'와 그로 인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1) 국어, 문학,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등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부탁을 수락한 이유'와 그로 인한 '결과'라는 주제와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제시문을 읽고 그 요지와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텍스트 독해력, 2) 제시문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부탁을 수락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종합하는 맥락 해석능력, 3) 제시문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능력, 4) 특정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 '이유'와 '결과'를 기술할 수 있는 분석력 그리고 5)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주어진 시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출제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독해력, 2) 발견한 내용을 자연스러운 말로 기술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네 개의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고 지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부탁을 수락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로 인해 수락한 인물에게 발생한 '결과'를 찾아낸 후, 이를 자신의 언어로 변환하여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제시문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는 비판력, 3) 제시된 두 개의 글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제시문 (라)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마)에 나타난 관리소장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을 평가하려 한다. 더불어,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마)에 나타난 상황에 대처하는 관리소장의 역할을 서술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3]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노숙인과 노숙인 시설의 아이들이라는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의 목적이 그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과 그 방식에 있어 빅이슈코리아는 실천 정도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슈팅 백 프로젝트는 교육을 통한 성취를 경험하게 한다는 차이가 있음을 제시문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완결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2) 볶음밥을 요리하며 얻은 삶의 교훈을 바탕으로 사진 찍는 방법을 배울 때 지녀야 할 두 가지 태도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해 완결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윤홍길, 「완장」, 김창원 외 11인, 『문학』, 동아출판, 2019, 119-122쪽.
- 제시문 (나): 이강백, 「파수꾼」, 신유식 외 6인, 『국어』, 미래엔, 2018, 200-205쪽.
- 제시문 (다): 윤홍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이성영 외 5인, 『국어』, 천재교육, 2018, 293-305쪽.
- 제시문 (라): 「전사회 공간을 빌려라」, 박안수 외 11인, 『국어』, 비상교육, 2018, 200-203쪽.
- 제시문 (마): 김경옥, 「승강기」, 김동환 외 6인, 『국어』, 교학사, 2019, 388-394쪽.
- 제시문 (바):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 정창우 외 6인, 『생활과 윤리』, 미래엔, 2018, 184-187쪽.
- 제시문 (사): 「협상에 대한 이해」, 류수열 외 10인, 『국어』, 금성출판사, 2018, 302-305쪽.
- 제시문 (아): 「빈곤의 유형과 해결 방안」, 서범석 외 5인, 『사회·문화』, 지학사, 2018, 155-156쪽.
- 제시문 (자): 이태호, 「미술, 세상을 바꾸다」, 손영찬 외 4인, 『사회·문화』, 미래엔, 2018, 84쪽.
- 제시문 (차): 노명우, 「우주와 사랑을 품은 요리, 볶음밥」, 이성영 외 5인, 『국어』, 천재교육, 2018, 409-413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동아출판, 2019)에 실린 윤홍길의 「완장」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한 글이다. 「완장」은 「완장」을 소재로 하여 권력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허황된 의식을 해학적 요소를 가미하여 서술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완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곧 '권력'을 상징한다. 이 제시문에서 종술은 순전히 '완장' 때문에 처음에 마다하던 저수지 감시원을 맡지만, 종술의 어머니 윤암택은 '완장'에 얽힌 나쁜 기억 때문에 아들이 '완장'을 차는 것을 우려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국어』(미래엔, 2018)에 실린 이강백의 「파수꾼」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한 글이다. 「파수꾼」은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라는 우화를 활용하여 1970년대 정치 상황을 풍자한 희곡이다. 겉으로는 이리 떼와 관련된 거짓말을 하는 촌장과 파수꾼의 이야기이지만, 실제로는 거짓으로 민중을 통제하는 정치권력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그려 낸 것이다. 이 제시문에서 촌장은 협박과 회유를 통해 파수꾼 '다'가 진실을 폭로하려는 것을 막는다. 촌장에게 속은 파수꾼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 진실을 밝힐 기회를 잃는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천재교육, 2018)에 실린 윤홍길의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현실의 문제를 드라마으로써 삶을 성찰하게 하는 소설이다. '나의 집에서 셋방살이를 하는 권 씨는 아내의 출산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를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해 '나'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한다. 수술비를 마련해준 후 새로운 생명 탄생의 과정을 지켜보는 '나'도 감격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

제시문 (리)는 고등학교 『국어』(비상교육, 2018)에 실린 「전사회 공간을 빌려라」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구청 강당을 빌리는 문제를 두고 고등학교생과 구 공무원이 협상을 벌인 담화이다. 입장이 다른 두 참여자가 타협과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협상의 단계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글이다. 협상에 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국어』(교학사, 2019) 교과서에 실린 김경옥의 「승강기」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을 통해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승강기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항의하는 인물과 주민의 항의에 대응하는 관리소장, 그리고 입장이 서로 다른 주민이 등장한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관리소장의 태도와 역할을 비판해 볼 수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미래엔, 2018) 교과서에 실린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의 일부다. 이 제시문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사례로 소개된 신문 기사이다. 이 사례는 공공 기관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는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기관의 신뢰 구축 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국어』(금성출판사, 2018) 교과서에 실린 「협상에 대한 이해」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세입자 대표와 건물주 대표, 구청 책임자의 협상을 가상으로 구성한 것으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과정이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구청 책임자의 중재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사회·문화』(지학사, 2018) 교과서에 실린 「빈곤의 유형과 해결 방안」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비영리를 원칙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인 빅이슈코리아가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는 사례를 소개한 뉴스 기사이다. 이 글은 빅이슈코리아가 노숙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독려하는 데 있어 잡지 판매와 적금 목표를 달성한 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했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사회·문화』(미래엔, 2018) 교과서에 실린 이태호의 「미술, 세상을 바꾸다」의 내용이다. 이 제시문은 노숙인 시설의 아이들에게 카메라 다루는 법과 사진 찍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슈팅 백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한다. 이 글은 사진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를 찾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했다.

제시문 (차)는 고등학교 『국어』(천재교육, 2018) 교과서에 실린 노명우의 「우주와 사랑을 품은 요리, 볶음밥」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자립 요리로 볶음밥을 추천하며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조합으로 새로운 볶음밥을 발견할 수 있듯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요리한 결과가 어울리지 않더라도 실패를 통해 어떤 재료가 서로 어울릴지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부탁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부탁을 수락한 '이유'와 수락한 인물에게 발생한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에는 부탁을 수락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가)에서 감시원직을 수락한 이유는 완장을 찬 사람들에게 당한 고통으로 생긴 한과 완장이 상징하는 권력에 대한 선망 때문이다. 그 결과 어머니가 기뻐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과거의 기억으로 인한 어머니의 우려 때문에 의견 대립이 생긴다. (나)에서 '다'가 촌장의 부탁을 수락한 이유는 자신의 확신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과 촌장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그 결과 '다'는 촌장에게 배신당해 격리되고 진실을 말할 기회를 잃는다. (다)에서 권씨의 부탁을 수락한 이유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권씨에 대한 연민과 전세금도 빚이라는 부채감 때문이다. 그 결과 보호자가 된 듯한 보람과 생명 탄생의 감동을 느낀다. (라)에서 강당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수락한 이유는 학생들의 행사가 공공성이라는 운영원칙에 부합하고, 일정이 협의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구청이 주민 행사를 돕는다고 홍보할 기회를 얻는다. 이처럼 등장인물들은 권력, 믿음, 연민과 부채감, 공공성 등을 이유로 부탁을 수락하고, 의견 대립, 기회 상실, 보람과 감동, 기회 획득 등의 결과를 얻는다. (567자)

[문제 2] 제시문 (라)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관리소장'의 태도를 비판하고, 제시문 (마)의 '공'이 느끼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소장'의 역할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라)에서 두 인물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양보하며 대화하는 협력적 태도를 보인다. 공무원은 상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융통성 있게 의견을 조정한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마)의 '관리소장'은 '공'의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관리소장은 '공'의 입장을 헤아리거나 소통하려 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소장은 신뢰에 기반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관리소장은 '공'에게 아파트 안전의 원칙과 승강기의 현 상태를 알려주어 승강기 교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교체 비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과의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나아가, 관리소장은 공식적인 협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동 분담에 협조할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한다. 특히, '공'과 같은 입장을 가진 주민들에게 보상과 혜택을 제안하고 추가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관리소장은 공이 느끼는 부당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566자)

[문제 3] 제시문 (아)의 '빅이슈코리아'와 (자)의 '슈팅 백 프로젝트'의 목적의 공통점과 지원방식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제시문 (자)의 아이들이 사진 찍는 방법을 배울 때 지녀야 할 태도를 제시문 (차)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아)의 빅이슈코리아와 (자)의 슈팅 백 프로젝트의 목적은 취약계층의 동기를 부여하여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때 (아)는 판매와 저축 등 경제 활동을 실천하는 정도에 상응하는 주거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자활을 돕는 반면, (자)는 사진 찍는 방법을 교육하여 이를 통한 성취를 경험하고 자기 발견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지원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의 아이들은 창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진취적 태도와 찍은 사진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이더라도 이를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는 긍정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349자)

채점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부탁을 수락한 '이유'와 수락한 인물에게 발생한 '결과'를 각각 찾아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평가한다. (32점)

(가) **이유:** 완장을 찬 사람들에게 당한 고통의 기억과 완장이 상징하는 권력에 대한 선망이 있음 (4점)

결과: 어머니가 기뻐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아버지에게 대한 기억으로 인한 우려 때문에 어머니와의 의견 대립이 생김 (4점)

(나) **이유:** 자신의 확신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과 총장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음 (4점)

결과: 총장에게 배신당해 격리되고 진실을 말할 기회를 잃게 됨 (4점)

(다) **이유:** 절박한 상황에 처한 권씨에 대한 연민과 전세금도 빚이라는 부채감이 있음 (4점)

결과: 보호자가 된 듯한 보람과 생명 탄생의 감동을 느낌 (4점)

(라) **이유:** 학생들의 행사가 공공성이라는 운영원칙에 부합하고, 일정이 협의되었음 (4점)

결과: 구청이 주민 행사를 돕는다고 홍보할 기회를 얻게 됨 (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부탁을 수락한 '이유'와 수락한 인물에게 발생한 '결과'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8점)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하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3점)

② 서론에서 문제를 요약하고, 결론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5점)

[예시]

서론: 제시문 (가)~(라)에는 부탁을 수락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결론: 이처럼 등장인물들은 권력, 믿음, 연민과 부채감, 공공성 등을 이유로 부탁을 수락하고, 의견 대립, 기회 상실, 보람과 감동, 기회 획득 등의 결과를 얻는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부탁을 수락한 이유와 수락한 인물에게 발생한 결과를 찾아 제시(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 및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라)를 토대로 제시문 (마)에 나타난 ‘관리소장’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5점)

① 제시문 (라)에서는 상우와 공무원이 서로 경청하고 양보하는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융통성 있게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서술한다 (5점)

② 이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관리소장이 ‘공’의 항의에 무책임한 태도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서술한다 (10점)

2) 제시문 (마)의 ‘공’이 느끼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소장’의 역할을 제시문 (바),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5점)

①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를 통합하여, 관리소장이 신뢰에 기반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함을 서술한다. (5점)

② 제시문 (바)의 사례를 적용하여, 관리소장이 승강기 교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교체 비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공’과의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한다. (10점)

③ 제시문 (사)의 사례를 적용하여, 관리소장이 협의의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동 분담에 협조하도록 중재해야 하고, 보상과 추후 논의를 통해 공동 분담에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한다. (10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라)를 토대로 (마)의 관리소장의 태도를 비판했는지를 평가 (15점)	(라)에 나타난 상우와 공무원의 태도를 파악한 경우	5점
		(라)를 토대로 (마)의 관리소장을 비판한 경우	5~10점
	②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의 ‘관리소장’에게 필요한 역할을 도출했는지 평가 (25점)	(바)를 토대로 (마)의 관리소장의 역할을 도출한 경우	10점
		(사)를 토대로 (마)의 관리소장의 역할을 도출한 경우	10~20점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의 관리소장을 도출한 경우	20~25점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330~35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아)에 나타난 빅이슈코리아와 제시문 (자)에 슈팅 백 프로젝트의 목적의 공통점과 지원방식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 (14점)

- ① 빅이슈코리아와 슈팅 백 프로젝트의 목적은 취약계층의 동기를 부여하여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는 점에 있다는 제시문 (아)와 제시문 (자)의 논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공통점으로 기술한 경우(7점)
- ② 빅이슈코리아는 경제 활동을 실천하는 정도에 상응하는 주거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지원방식이라는 제시문 (아)의 논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슈팅 백 프로젝트는 교육을 통한 성취 경험과 자기 발견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지원방식이라는 제시문 (자)의 논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둘의 차이점을 기술한 경우(7점)

2) 아이들이 사진 찍는 방법을 배울 때 지녀야 할 태도를 제시문 (차)를 활용하여 서술하였는지 평가한다. (6점)

- ① 사진을 창의적으로 찍을 때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지녀야 함이 요약 정리된 경우(2점)
- ② 찍은 사진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이더라도 이를 배움과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는 긍정적 태도를 지녀야 함이 요약 정리된 경우(2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아)의 빅이슈코리아와 (자)의 슈팅 백 프로젝트의 목적의 공통점과 지원방식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14점)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목적의 공통점과 경제적 지원과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지원방식을 차이점으로 제시	1~3점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목적의 공통점과 실천 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지원과 교육에 따른 성취 경험을 제공하는 지원방식의 차이점을 제시	4~7점
		취약계층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는 목적의 공통점과 실천 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지원과 교육에 따른 성취 경험을 제공하는 지원방식의 차이점을 제시	11~14점
	② (자)의 아이들이 사진 찍는 방법을 배울 때 지녀야 할 태도를 (차)를 활용하여 명확하게 서술(6점)	사진을 창의적으로 찍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내용 요약 정리	1~3점
사진을 창의적으로 찍을 때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진취적 태도와 찍은 사진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이더라도 이를 배움과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는 긍정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내용 요약 정리		4~6점	

2. 경영경제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주 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 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 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 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잣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는 김 일등병을 향해, “꽃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 있는 발 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그때, 바로 그때 주 대위의 귀에 은은한 꽃소리 사이로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다.

“개 짖는 소리 같애.”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 일등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을 쳐 나갔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김 일등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질을 쳤다. 주 대위는 김 일등병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

김 일등병이 드러누우며 혼잣소리로, “내일쯤은 까마귀 떼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눈알이 붙어 있는 것두 오늘 밤뿐야.”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권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깜짝 놀라 돌아다보니 어둠 속에 주 대위가 권총을 이리 겨눈 채 목 속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게, “날 업어!” 하는 것이다. 김 일등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어나 등을 돌려 대는 수밖에 없었다.

“자, 걸어라!” 김 일등병은 자기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끝이 와 닿음을 느꼈다.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 대위의 말대로 죽을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 놓는 동안에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 놓게 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산 밑에 이르렀다. 그제야 김 일등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 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건만 쉬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 뒤에 와 닿은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짚고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과 동시에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별안간 물러나면서 업힌 주 대위 몸통이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나) [앞부분의 줄거리] 한국 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겨우 도망친다.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네로 가서 숨어 지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되어 총상을 입고 죽게 된다.

마취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하였는지 그 후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

됐다.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장이 되어 누워 있었다. 간혹 문병을 와 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던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판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자리에서 예구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호수 에미, 나 좀 보자.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 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벌판의 밭머리에 가매장*했다.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훑훑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가매장(假埋葬): 임시 매장. 시체를 임시로 묻음.

*행려병사자: 떠돌아다니다가 타향에서 병들어 죽은 사람.

*선영(先塋): 조상의 무덤. 또는 그 근처의 땅.

(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날도 여지없이 번개탄 아저씨의 있어요,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난 중이었다. 그때, 그 소리가, 하늘이라도 찢을 듯이 쿵 하는 총소리가 들려왔다. 총소리는 그렇게, 가을날의 일요일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날 일단의 사냥꾼들이 동네를 에워쌌다. 총소리는 밤낮의 구별이 없었다. 그것은 참으로 무차별적이었다. 정희가 공포스러워하는 건 단순한 총소리 때문이 아니었다. 사냥꾼들을 피해 쫓기는 짐승들의 발소리가 바로 지척에서 들렸다. 마을 이장에게 알아본 바로는 지금이 바로 수렵 금지 해제 기간이라는 거였다. 이제 이런 해제 기간이 반복된다면 시골에서도 못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적어 가슴속에서 움터 올랐다.

그리고 그다음 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난 뒤, 그날도 시어머니는 세상일은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명석 위에

도마를 내어놓고 애호박을 나박나박 썰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완벽한 평화였다. 그리고 그 평화를 둘러싼 세상은 지금 한판 살육제를 펼치고 있는 거였다. 그날도 총을 든 남자들이 마을 안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타고 온 자동차가 하필 정희네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냥 시어머니처럼 세상일 내 알 바 아니라고, 그저 내 하던 일에만 신경 쓰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적어도 나는 평화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불행이나 한계인지도 모른다. 총을 든 사내들은 '사냥꾼'들이었다. 사냥꾼이라면 언젠가 아이들에게 읽어 주던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사냥꾼만 있는 줄 알았다. 살려 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 주었어요. 여보시오, 사슴 한 마리 못 보았소? 저쪽으로 갔어요. 고맙다며 사슴이 갔다는 저쪽을 향해 달음질치는 사냥꾼. 그래서 정희가 여보시오, 차를 빼시오, 하면 그 사냥꾼들도 알았소, 하고 순순히 차를 빼 줄 줄 알았던 것일까.

“이봐요, 차를 여기서 대 놓으면 어떡해요.”

정희가 소리쳤을 때 사내 중 하나가 흘깃 돌아보고는 가던 길을 그대로 올라갔다.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내 집 앞에 차를 대 놓지 말라고 하는 게 왈왈거리는 소리로 들려요?”

“금방 갈 거야, 그리고 거기가 당신 땅이야?”

“이봐요, 지금 누구한테 반말이에요, 반말이?”

무슨 일인가 하고 시어머니가 내다보다가 정희 옷자락을 낚아채서 집 안으로 끌어당겼다.

(라) [앞부분의 줄거리] 어린 승려인 도념은 파계한 비구니인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그러던 중에 죽은 자식의 불공을 드리러 찾아오는 서울 안 대갓집 미망인에게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다. 미망인이 그를 수양아들로 삼기로 하자 도념은 기뻐하며 서울 생활을 기대한다. 그런데 도념이 어머니에게 줄 털목도리를 만들기 위해 살생을 금하라는 계율을 어기고 잡은 토끼들의 가죽이 불상 뒤에서 발견된다. 이를 본 주지는 도념의 하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도념 (홀연히) 스님, 전 세상에 가서 살구 싶어요.

주지 무얼 잘했다구 또 그런 소리를 하구 있니? 네 어미란 대죄를 지은 자야. 너에겐 에미라기보다 대천지 원수라는 게 마땅하겠다. 파계를 한 네 에미 죄의 피가 그 피를 받은 네 심줄에 가득 차 있으니, 너는 남이 한 번 헤일 염주면 두 번 헤어야 한다.

도념 왜 밤낮 어머니 욕만 하십니까?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은 그 얼굴처럼 마음두 인자하시다구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지 그건 부처님에게만 여쭙는 소리야. 네 아버지의 죄가 네 어미에게도 옮겨서 그러니라. 네 아버지는 사냥꾼 이거든, 하루에도 산 짐승을 수십 마리씩 잡아, 부처님의 가슴을 서늘하시게 한 대악무도한 자야. 빨리 법당으루 들어가자. 냉수에 목욕하구, 내가 부처님께 네가 저지른 죄를 모다 깨끗이 씻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마.

도념 싫어요, 싫어요. 하루 종일 향불 냄새를 쐬면 골치가 어쩔어쩔해요.

주지 이게 무슨 죄받을 소리니? 도념아, 너, 저 연못을 봐라. 오월이 되면 꽃이 피고, 잎사귀엔 구슬 같은 이슬이 구르구르 있지 않니? 저렇게 잔잔한 연못두 한 겹 물만 퍼내구 보면 시꺼먼 개흙투성이야. 그것뿐인 줄 아니? 십 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갈라구 햇바닥을 널름거리며 비 오기만 기다리구 있단다. 동네두 꼭 저 연못과 마찬가지로. 겉으루 보면 모두 즐겁구 평화한 듯하지만 속에는 모든 죄악과 진애*가 들끓는 그야말로 경문에 아로새겨 있는 글자 그대루 오탁*의 사바*니라.

도념 아니에요. 모두들 그렇지 않대요. 연못 속에는 연근이라는 뿌리지가 있지, 이무기는 없대요. 스님, 바른

대루 말이지, 저는 이 절에 있기가 싫습니다.

주지 듣자 듣자 하니까 나중엔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도넬 스님,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난 내려가겠어요.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았구 떠나는 사람을 붙들지 았는 것이 우리 절 주의라구 늘 말씀하시지 았으셨습니까?

주지 (열화같이 노하며) 수다스러. 한번 못 간다면 못 가는 줄 알아라.

(미망인을 보고) 아씨께서 진정으로 았를 사랑하신다면, 았 매디매디에 사무쳐 있는 전생의 죄 속에서 영혼을 구하게 이 절에 뒤 주십시오. 자기 한 몸의 죄만 아니라 제 아버지 제 어머니 죄도 씻어야 할 테니까 았는 여간한 공덕을 쌓기 전에는 저승에 가서 무서운 지옥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애(塵埃): 세상의 속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탁(五濁): 세상의 다섯 가지 더러움.

*사바(娑婆): 괴로움이 많은 인간 세계. 석가모니불이 교화하는 세계.

(마) 1950년대,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이 나온 지 1세기가 지났지만,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의 처지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다. 물론 경제적 형편은 전반적으로 조금 나아졌으나 사회적 차별은 여전했다. 특히 남부에서 흑인은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백인들에게서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었다. 백인들과는 다른 학교에 다녀야 했고, 공공 장소에서도 백인들과 분리되어 따로 서 있어야 했다. 버스를 탈 때는 뒷문을 이용해야 했고, 공원의 수도꼭지는 백인용과 흑인용이 구별되어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흑인들 사이에도 정당한 대접을 받으려고 스스로 나서고 수백 년 된 흑백 차별의 사회적 관습에 도전해 보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서도 로자 파크스라는 한 여인의 용기 있는 행동은 1960년대에 절정을 이룬 흑인 민권 운동의 선구와도 같았다. 로자 파크스가 살던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는 오랫동안 버스 좌석이 인종별로 나뉘어 있었다. 1955년 12월 1일, 한 버스에 올라탄 로자 파크스는 백인만 앉을 수 있는 맨 앞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운전사와 승객들이 자리를 옮기라고 말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로자 파크스는 곧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미국 흑인 지위 향상 협회와 흑인 민권 운동가들은 로자 파크스 사건을 법의 심판대로 끌고 갔다. 그리고 1년 후 연방 대법원은 버스 내에서의 흑백 구별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흑인들은 크게 고무되었다. 지금까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인종 차별의 벽이 자신들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노력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로자 파크스라는 한 여인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개인의 작은 용기가 때로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뒤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바) [앞부분의 줄거리]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 '남자'는 밤새 내린 눈이 허리를 넘어설 만큼 쌓여 출근할 수 없게 된다. 초조함 속에서 하루를 더 보낸 남자는 결국 눈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하지만 금세 지쳐 버린다.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던 남자는 우수 사원인 유 대리 역시 출근하지 았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 대리에게 전화해 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았는다.

빨리 안 오고 뭐 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느새 두 시였다. 남자는 샅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쳤다.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 순간에는 눈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았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심지어 숨이불처럼 포근하게 느껴져서 안으로 한없이 파고 들어가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남자는 쭈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한기 때문에 경기하듯* 깨어났다.

회사까지의 거리는 이제 삼 분의 일쯤 남아 있었다. 남자는 과장의 문자와 부장의 전화를 한 번씩 받지 았

다. 남자는 그저 파고 걸었다. 쉴 때는 허리를 펴고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 든 따뜻한 캔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 버렸다.

한참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삼 끝에 딱딱한 게 또 걸렸다. 시간은 촉박하고 마음은 급한데 발로 눌러도 삼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삼과 손으로 눈을 파냈다. 눈 속에서 검은색 구두와 발, 모직으로 된 양복바지가 차례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양복 차림의 사람은 눈의 중간쯤에 화석처럼 묻혀 있었다. 몸은 추운데 남자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남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치웠다. 눈을 쓸어 내자 어깨와 목, 안경을 쓴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흑시라도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려던 남자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 속에서 화석이 된 사람은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던 유 대리였다.

해가 기울고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 이대로 한 시간 정도만 파고 가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는 회사 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파고 온 길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다시 돌아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그는 유 대리의 옆에 쫓그리고 앉아서 숨을 골랐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다. 눈 더미는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다.

*경기(驚氣)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다.

(사) 서른 살이 넘어도 아직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공연히 속도만 내는 젊은이들을 가끔 본다. 그럴 경우, 어떤 젊음의 속도를 낸들 그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잘못 들어선 산길에서는 아무리 바쁜 걸음으로 걸어도 산정에 다다를 수 없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 방향을 놓치고도 미처 그 사실을 모른다면 아무리 달려도 목적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돛단배의 방향은 바람의 방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려 있다. 인생의 방향도 타의에 의해 설정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 설정된다. 물론 그 방향은 선하고 성실한 방향이어야 한다. 선한 방향이 아니면 누구의 인생이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인생이라는 여행의 방향이 정해진 뒤에는 목표 지향적 여행보다 경로 지향적 여행이 더 바람직하다. 목표 지향적 여행을 하게 되면 자칫 방향보다 속도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천박한 속성인 경쟁에서 나오되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속도를 내려고 한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뒤처지면 인생 자체가 낙오된 듯 여긴다. 그러나 경로 지향적 여행을 하게 되면 인생의 속도는 줄어든다. 어디를 거쳐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 며칠 밤을 묵고 갈까 하는 여유를 지니게 된다. 그런 여유 속에서 인생은 목표보다는 경로가, 속도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길 또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고 넓어짐으로써 자족하는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된다.

(아) 고전 소설을 읽다 보면 조선 시대의 사회 체제 아래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중세 체제를 비판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인물을 만날 수 있다. 이를 개인 간의 관계로 보면, 지체가 낮거나 나이 어린 사람이 권위 있고 지체가 높은 상대에게 지나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나타난다. 고전 소설에 그려진 당돌한 인물 형상은 소설이 갖는 본질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현실의 질곡*에서 벗어나 상상의 세계에서 마음껏 노닐고 싶은 욕망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소설에 설정된 사건과 그것을 겪는 인물은 현실의 체제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면에서 소설에 그려진 세상은 그 시대와 체제의 반영인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려는 당대인의 노력이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이에 소설의 주인공은 본질적으로 당돌한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순종적이거나 소극적인 성격으로는 소설의 흥미 요소 중 하나인 사건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체제에 도전하고 체제를 넘어서는 자세를 요구받는다. 그래야 인물의 성격도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그가 겪는 사건도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개될 것이다. 소설 속에서 당돌한 인물을 만나면 우리는 그로부터 무엇인가 시대를 앞서 나가는 의식과 자세를 보게 된다. 기존의 것에 안주하지 않고 무엇인가 새롭고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과 태도가 당돌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겠다.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현재의 질곡을 타개하고자 하는 당당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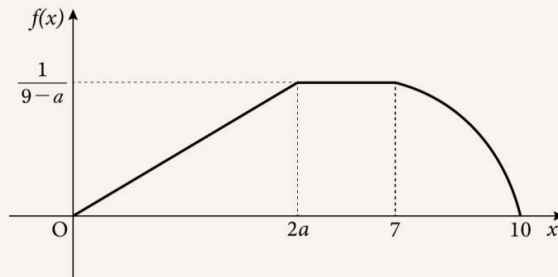
*질곡: 몹시 속박하여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강요를 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강요하는지 찾고, 강요하는 ‘이유’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여인’이 강요를 거부하는 ‘이유’와 제시문 (라)의 ‘도념’이 강요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남자’가 강요에 대처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남자’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제시문 (사)와 (아)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풀이 과정 포함)

- 두 국가 M과 N에서 각각 48명과 42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스스로 진로를 결정한 정도가 진로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한 정도를 ‘진로자기결정성’이라 할 때, 진로자기결정성을 1(낮음), 2(보통), 3(높음)의 값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가 M의 학생 48명 중 진로자기결정성이 1이라고 답한 학생이 8명, 2라고 답한 학생이 28명, 3이라고 답한 학생이 12명이다.
 - 국가 N의 학생 42명 중 진로자기결정성이 1이라고 답한 학생이 12명, 2라고 답한 학생이 21명, 3이라고 답한 학생이 9명이다.
- 한편, 연속확률변수인 진로 만족도 X 가 갖는 값의 범위는 $0 \leq X \leq 10$ 이고, 진로자기결정성 값이 a 일 때 X 의 확률밀도함수 $f(x)$ 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 어떤 학생의 진로 만족도가 7 이상이면, ‘매우 만족’으로 간주한다.

[문제 3] 선발된 90명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하여 진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더니 ‘매우 만족’이었다고 할 때, 이 학생이 국가 M의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평가목표

경영경제계열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적절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25학년도 논술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선별하였고,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하였다. 2025학년도 경영경제계열 논술의 핵심 키워드는 '강요'로, 1번 문항의 경우 강요를 하는 '힘의 원천'과 '대상', '이유'에, 2번 문항의 경우 강요에 대처하는 '방식'과 '태도'에 연관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등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강요'와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제시문을 읽고 그 요지와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텍스트 독해력, 2) 각 제시문의 인물이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는 상황을 주어진 제시문에서 도출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거나 함축하는 내용에 비추어 분석, 요약, 종합하는 맥락적 사고력, 3) 상대방이 강요를 받아서 대처하는 상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거나 함축하는 내용에 비추어 이해하고, 이를 여타 제시문에 비추어 비판하는 유추적 사고력, 4)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주어진 시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출제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제시문 (가)~(라)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등장인물이 '어떤 힘'을 근거로 '무엇'을 '왜' 강요하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고, 단순 요약이 아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특정 글의 논지에 근거하여 다른 글에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비판적 사고력, 3) 서로 보완적인 관점들을 활용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취해야 할 태도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시문 (마)의 여인이 강요를 거부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제시문 (라)의 노념이 강요에 대응하는 방식과 연결하여, 제시문 (바)의 남자가 강요에 대처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제시문 (사)와 (아)의 요지를 각각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남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추론하여 기술해야 한다.

[문제 3] 일상생활에서의 복잡한 상황을 더 쉽게 표현하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상황을 확률적 문제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상황에 따른 확률변수와 확률분포를 이해하는 과정은 확률적 상황 및 성질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본 문제에서는 연속확률변수의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하여 두 개의 조건에 따른 확률을 계산하고, 조건부확률과 확률의 곱셈정리를 이용하여 특정 조건의 확률을 구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정재찬 외 5인, 『문학』, 지학사, 2019, 247-251쪽.
- 제시문 (나): 박완서, 「엄마의 말뚝 2」, 민현식 외 12인, 『국어』, 좋은책신사고, 2018, 254-264쪽.
- 제시문 (다): 공선옥, 「한데서 울다」, 이성영 외 5인, 『국어』, 천재교육, 2018, 51-61쪽.
- 제시문 (라): 함세덕, 「동승」, 고희진 외 5인, 『국어』, 동아출판, 2018, 43-49쪽.
- 제시문 (마): 유종선, 「어느 흑인 여성의 용기」, 고희진 외 5인, 『독서』, 동아출판, 2019, 142-143쪽.
- 제시문 (바): 서유미, 「스노우맨」, 방민호 외 5인, 『문학』, 미래엔, 2019, 76-81쪽.
- 제시문 (사): 정호승, 「목표 지향적 삶보다 경로 지향적 삶을 살아라」, 이삼형 외 5인, 『화법과 작문』, 지학사, 2019, 43-44쪽.
- 제시문 (아): 신재홍, 「당돌함의 미학」, 이성영 외 5인, 『국어』, 천재교육, 2018, 420-421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지학사, 2019)에 실린 황순원의 글 「너와 나만의 시간」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강요의 상황을 찾아내고 등장인물이 강요하는 힘의 근거 및 이유를 유추하는 데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너와 나만의 시간」은 전쟁에서 낙오된 상황에서 죽음을 직면한 군인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소설로,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발휘하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에 대해 역설한다. 이 제시문에서, 부상을 당한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은 인적이 없는 산속에 낙오되어 지친 상태다. 주 대위는 총이라는 물리적 힘을 통해 김 일등병에게 자신을 업고 이동하라고 강요한다. 이는 생존 의지를 잃어가는 김 일등병이 인가를 발견하도록 활로를 찾게 하기 위해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국어』(좋은책신사고, 2018)에 실린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2」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강요의 상황을 찾아내고 등장인물이 강요하는 힘의 근거 및 이유를 유추하는 데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엄마의 말뚝 2」는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비극적 삶을 딸의 관점에서 서술한 소설이다. 어머니가 딸에게 유언을 남기는 본 제시문에서, 어머니는 부모의 자격으로 본인의 장례 방식에 대해 딸에게 강요하고 있다. 어머니는 아들과 같은 방식으로 본인을 화장해 달라고 딸에게 요구하면서, 전쟁으로 인해 아들을 잃은 아픔을 표출하고 부조리한 분단 현실에 분연히 저항하고 있다. 딸은 어머니가 한국 전쟁 당시 인민군 군관의 총에 오빠를 잃게 된 어머니의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고 강요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천재교육, 2018)에 실린 공선옥의 「한데서 올라」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강요의 상황을 찾아내고 등장인물이 강요하는 힘의 근거 및 이유를 유추하는 데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한데서 올라」의 주인공인 정희는 남편과 마련한 도시의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 소음으로 가득한 그곳을 ‘한데’라고 느끼며 괴로워 한다. 정희의 가족은 시골집으로 이사 오지만 시골에서의 삶이 기대와 달리 만만치 않음을 알고 힘들어 한다. 이 제시문에서 정희는 자신의 시골집에 나타난 사냥꾼들에게 자신에게 집 앞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집 앞에서 차를 빼라고 강요한다. 이는 자신의 공간을 침범하고 살육을 벌이는 사냥꾼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국어』(동아출판, 2018)에 실린 함세덕의 「동승」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강요의 상황을 찾아내고 등장인물이 강요하는 힘의 근거 및 이유를 유추하는 데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동승」은 숲 속 절에 기거하는 어린 승려 도념과 주지스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희곡으로,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을 불교적 금욕 세계와의 대비를 통해 형상화한다. 이 제시문에서 도념은 서울에 사는 미망인을 따라 절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주지스님은 스승이자 종교적 지도자로서 도념의 하산을 불허한다. 이는 계율을 어기고 살육을 한 도념이 죄를 뉘우치고 불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독서』(동아출판, 2019) 교과서에 실린 유중선의 「어느 흑인 여성의 용기」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관습적으로 존재하는 흑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저항하는 로자 파크스의 예를 통해서 일상적 차별의 관습에 대항하는 용기있는 행동에 대해서 보여준다. 흑인과 백인의 버스 자리가 구별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흑인 자리로 옮기라는 강요에 불응한 로자 파크스의 행위는 이후 인종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문학』(미래엔, 2019) 교과서에 실린 서유미의 「스노우맨」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밤새 내린 눈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출근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회사를 향해가는 남자의 모습이 그려진다. 남자는 오로지 출근을 해야 한다는 목적 아래 끊임없이 눈을 헤치며 회사를 향해 가며, 그 와중에 동료인 유대리 역시 회사로 가는 길에서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출근을 강요하는 상사의 말이 가지는 비합리성이나, 그러한 강요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남자의 모습을 통해서 경쟁 사회 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한 체 기계적인 노동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지학사, 2019) 교과서에 실린 정호승의 「목표 지향적 삶보다 경로 지향적 삶을 살아가라」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삶에 필요한 중요한 태도를 삶의 방향과 삶의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무작정 속도를 내는 삶을 추구하기 보다는 주체적인 판단을 통해 선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이 강조된다.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 뒤에는 목표 지향적인 삶의 자세보다는 경로 지향적인 자세를 통해서 삶의 과정이 가지는 중요함을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국어』(천재교육, 2018) 교과서에 실린 신재홍의 「당돌함의 미학」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고전 소설에 나타나는 당돌한 주인공들에 주목하여 당돌함이라는 말의 뜻과 당돌한 인물들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당돌한 인물은 시대와 체제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의 질곡을 넘어서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다.

문제 3번 수리논술 문제에 사용된 지문은 다음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개념들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 권오남 외, 『확률과 통계』, II-2-1 조건부확률, 교학사, 2023, 62-66쪽.
- 이준열 외, 『확률과 통계』, II-2-1 조건부확률과 확률의 곱셈정리, 천재교육, 2024, 62-65쪽.
- 고성은 외, 『확률과 통계』, II-2-1 조건부확률, 2020, 58-61쪽.
- 권오남 외, 『확률과 통계』,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교학사, 2023, 82-88쪽.
- 이준열 외, 『확률과 통계』, III-1-4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천재교육, 2024, 83-88쪽.
- 고성은 외, 『확률과 통계』,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좋은책신사고, 2020, 79-83쪽.

예시답안 및 채점기준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강요를 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강요하는지 쓰고, 강요하는 ‘이유’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각 제시문에는 어떤 힘이 근거로 타인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제시문 (가)에서는 대위가 총이라는 물리적 힘이 있다고 생각하여 일등병에게 자신을 업고 이동하라고 강요한다. 이는 일등병을 인가로 인도하여 그가 끝까지 생존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제시문 (나)에서 어머니는 부모로서의 권위로 딸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화장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는 부조리한 분단 현실로 인해 아들을 잃은 고통을 표출하고 그것에 항의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제시문 (다)에서 여자는 자기 집 앞에 차를 대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다고 여겨서 사냥꾼들에게 차를 빼라고 요구한다. 이는 자신의 일상을 침범하고 살육을 벌이는 사냥꾼들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제시문 (라)의 주지는 스승이자 종교인으로서의 권위를 바탕으로 도념이 절에 남기를 강요한다. 이는 도념이 속세에 나가 타락하지 않고 수행을 통해 죄를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각각의 인물은 물리적 위협, 부모의 권위, 암묵적 권리, 스승의 지위 등의 힘을 내세워 이타심, 저항, 반감, 교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다. [564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여인’이 강요를 거부하는 ‘이유’와 제시문 (라)의 ‘도념’이 강요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남자’가 강요에 대처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남자’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제시문 (사)와 (아)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마)의 여인은 사회적 관습 속에 명백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버스에서 자리 이동을 거부한다. 제시문 (라)의 도념은 권위에 기반한 강요에 의문과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절을 떠나고 싶다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피력하며 그 의지를 적극적으로 관철하려 한다. 제시문 (마)와 (라)를 토대로 볼 때, 제시문 (바)의 남자는 상사가 일방적으로 가하는 강요가 타당하고 수용 가능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또한, 상사의 강요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사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 등, 상사의 명령에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한편, 제시문 (사)에 따르면, 남자는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선하고 성실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여 불합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목표만을 향하기보다는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과 여유로운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제시문 (아)에 따르면, 남자는 자신감을 갖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며, 부당한 권위나 지위의 행사에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567자]

[문제 3] 선발된 90명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하여 진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더니 ‘매우 만족’이었다고 할 때, 이 학생이 국가 M의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예시 답안]

(1) 자기결정성의 조사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진로자기결정성		1	2	3	합계
학생 수	국가 M	8	28	12	48
	국가 N	12	21	9	42

위의 표를 통해 국가별로 진로자기결정성의 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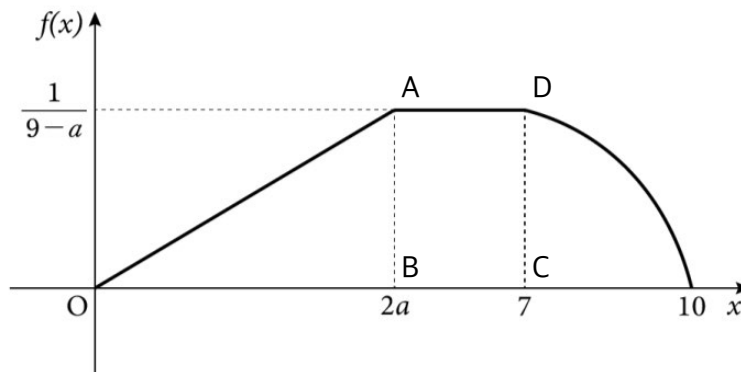
진로자기결정성		1	2	3	합계
학생 비율	국가 M	$\frac{1}{6}$	$\frac{7}{12}$	$\frac{1}{4}$	1
	국가 N	$\frac{2}{7}$	$\frac{1}{2}$	$\frac{3}{14}$	1

(2) 진로자기결정성 값이 a 일 때,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은 아래 그림에서

$7 \leq x \leq 10$ 에서의 그래프 아래 영역의 넓이와 같다. 이는 다시 말해 1에서 삼각형 OAB의 넓이와

사각형 ABCD의 넓이를 뺀 것과 같다. 삼각형 OAB의 넓이는 $\frac{a}{9-a}$, 사각형 ABCD의 넓이는 $\frac{7-2a}{9-a}$ 이므로,

A 점수가 a 일 때 ‘매우 만족’일 확률은 $1 - \frac{a}{9-a} - \frac{7-2a}{9-a} = \frac{2}{9-a}$ 이다.



(3) 임의로 한 학생을 택했을 때, 학생이 국가 M의 학생인 사건을 A ,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사건을 B 라 하자. 임의로 선택한 학생의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이었을 때, 그 학생이 국가 M의 학생일 확률은 $P(A|B) = \frac{P(A \cap B)}{P(B)}$ 이다.

(4) $P(A \cap B)$ 는 어떤 학생이 국가 M의 학생이면서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다. 확률의 곱셈법칙에 의해

$$P(A \cap B) = P(A)P(B|A) \text{ 이다. } P(A) = \frac{48}{90} = \frac{8}{15} \text{ 이다.}$$

(5) (1), (2)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가 M의 학생 중 $\frac{1}{6}$ 은 진로자기결정성이 $a=1$ 이므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 $\frac{2}{8} = \frac{1}{4}$ 이다.

국가 M의 학생 중 $\frac{7}{12}$ 은 진로자기결정성이 $a=2$ 이므로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 $\frac{2}{7}$ 이다.

국가 M의 학생 중 $\frac{1}{4}$ 은 진로자기결정성이 $a=3$ 이므로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 $\frac{2}{6} = \frac{1}{3}$ 이다.

따라서 $P(B|A) = \left(\frac{1}{6} \times \frac{1}{4}\right) + \left(\frac{7}{12} \times \frac{2}{7}\right) + \left(\frac{1}{4} \times \frac{1}{3}\right) = \frac{7}{24}$ 이다.

종합하면 $P(A \cap B) = \frac{8}{15} \times \frac{7}{24} = \frac{7}{45}$ 이다.

(6) (4), (5)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가 N의 학생 중 $\frac{2}{7}$ 은 진로자기결정성이 $a=1$ 이므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 $\frac{2}{8} = \frac{1}{4}$ 이다.

국가 N의 학생 중 $\frac{1}{2}$ 은 진로자기결정성이 $a=2$ 이므로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 $\frac{2}{7}$ 이다.

국가 N의 학생 중 $\frac{3}{14}$ 은 진로자기결정성이 $a=3$ 이므로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 $\frac{2}{6} = \frac{1}{3}$ 이다.

따라서 $P(B|A^c) = \left(\frac{2}{7} \times \frac{1}{4}\right) + \left(\frac{1}{2} \times \frac{2}{7}\right) + \left(\frac{3}{14} \times \frac{1}{3}\right) = \frac{2}{7}$ 이다.

종합하면 $P(A^c \cap B) = P(A^c)P(B|A^c) = \frac{7}{15} \times \frac{2}{7} = \frac{2}{15}$ 이다.

(7) (5), (6)을 종합하면 $P(B) = P(A \cap B) + P(A^c \cap B) = \frac{7}{45} + \frac{2}{15} = \frac{13}{45}$ 이다.

(8) 최종적으로, 구하는 확률은 다음과 같다.

$$P(A|B) = \frac{P(A \cap B)}{P(B)} = \frac{\frac{7}{45}}{\frac{13}{45}} = \frac{7}{13}$$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강요를 하는 ‘힘’, ‘무엇’, ‘이유’를 각각 찾아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평가한다.

단, 제시문을 해석할 때 명시적 내용만 아니라 함축적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가)에서 ‘계급적 지위’와 ‘물리적 힘’을 같이 쓴 경우 감점하지 않으며, (라)에서 ‘스승의 권위’나 ‘종교적 권위’ 둘 다 쓴 경우 1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32점)

(가) 힘: 총이라는 물리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함 (3점)

‘무엇’: 업고 이동하라고 명령함 (1점)

이유: 일등병을 인가로 인도하여 끝까지 생존하도록 하기 위함 (4점)

(나) 힘: 부모로서의 권위로 유언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함 (3점)

‘무엇’: 본인을 화장해 달라고 요구함 (1점)

이유: 분단 현실로 인해 겪은 상실의 고통을 표출하고 이에 항의하고자 함 (4점)

(다) 힘: 자기 집 앞에 차를 대지 못하게 할 암묵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 (3점)

‘무엇’: 차를 빼달라고 요구함 (1점)

이유: 자신의 일상을 침범하고 살육을 벌이는 사냥꾼들에 대해 반감이 있음 (4점)

(라) 힘: 스승이자 종교인으로서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함 (3점)

‘무엇’: 도둑이 절에 남기를 강요함 (1점)

이유: 도둑이 속세에 나가 타락하지 않고 수행을 통해 참회하도록 하고자 함 (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힘’, ‘무엇’, ‘이유’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8점)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하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3점)

② 서론에서 문제를 요약하고, 결론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5점)

[예시]

서론: 각 제시문에는 어떤 힘이 근거로 타인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결론: 이처럼 각각의 인물은 물리적 위협, 부모의 권위, 암묵적 권리, 스승의 지위 등의 힘을 내세워 이타심, 저항, 반감, 교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힘, 대상, 이유를 찾아 제시(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함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함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함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함	4~8점
	② 논리적 구성 (3점) 및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의 여인이 강요를 거부하는 이유와 제시문 (라)의 도념이 강요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남자가 강요에 대처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20점)

- ① 여인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관습에 명백한 차별이 내재한다는 판단을 내린다는 (마)의 논지를 요약함 (5점)
- ② 도념이 스승의 권위에 기반한 강요에 의문이나 반론을 제기하고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 한다는 (라)의 내용을 기술함 (5점)
- ③ (마)를 바탕으로, 남자가 상사의 강요에 대해 그 타당성과 수용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함 (5점)
- ④ (라)를 바탕으로, 남자가 상사의 강요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사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 등, 상사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대처한 점을 비판함 (5점)

2) 제시문 (사), (아)를 각각 고려하여 (바)의 남자에게 필요한 자세를 도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0점)

- ① 남자가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선택하고 성실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여 불합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시문 (사)의 내용을 요약함 (5점)
- ② 남자가 목표만을 향하기보다는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과 여유로운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기술함 (5점)
- ③ 남자가 자신감을 갖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아)의 내용을 요약함 (5점)
- ④ 남자가 부당한 권위나 지위의 행사에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를 발휘해야 함을 기술함 (5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 (라)를 토대로 (바)의 남자를 비판 (20점)	여인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관습에 명백한 차별이 내재한다는 판단을 내림	5점
		도념은 스승의 권위에 기반한 강요에 의문이나 반론을 제기하고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자기 의지를 관철함	5점
		남자는 상사의 강요에 대해 그 타당성과 수용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지 않음	5점
		남자는 상사의 강요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사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 등, 상사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대처함	5점
	② (사), (아)를 고려하여 (바)의 남자에게 필요한 자세 도출(20점)	남자는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선택하고 성실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여 불합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함	5점
		남자는 목표만을 향하기보다는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과 여유로운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갖춰야 함	5점
		남자는 자신감을 갖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함	5점
		남자는 부당한 권위나 지위의 행사에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를 발휘해야 함	5점

[문제 3] 20점 만점

- 진로자기결정성 점수가 a 일때 '매우 만족'일 확률을 정확히 구하면 +6점
- $P(A \cap B)$, $P(A^c \cap B)$ 를 정확히 계산하면 각 +6점(총 +12점)
- 답을 정확히 계산하면 +2점

※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답이 틀리더라도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채점자는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1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재가
중앙에 모여
강력한 파도
변화의 물결을
만듭니다**

남다른 방식,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대학,
미래를 향한 New Wave가
중앙대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지원 1위

5년 연속 수험생이 가장 많이
지원한 대학

10만명

국내 유일 최근 2년 연속
연간 10만명 이상 지원자 수 기록

다양성

가장 다양한 학생이 모이는 곳